NATIONAL GEOGRAPHIC
TRAVELER

PAID CONTENT FOR DESTINATION CANADA

CANADA

한-캐 수교 60주년 명예대사
김연아가 제안하는

캐나다 여행 아이디어 60

60 IDEAS

TRAVEL IN CANADA

Featuring Yuna Kim

KOREA CANADA CORÉE

AIR CANADA

BANFF & LAKE LOUISE

SPECTACULAR NORTHWEST TERRITORIES

HOW TO READ THE BOOK

여행자에게 전하는 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 여행자에게
다시 떠나야 할 이유는 무수합니다. 다만,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광활하게 열려 있는 여행지, 열린 마음을 지닌
현지인과 진실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여행지, 여정 후 한층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여행지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활짝 열려 있는 여행지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를 어떻게 '잘' 여행할 수 있을까.
이 책에는 여정에 영감을 불어넣고, 보다 많은 이들이 수월하게
캐나다 여행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해
캐나다를 여행하는 아이디어 60가지를 선별했습니다.
캐나다를 좀 더 깊숙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이 아이디어들은
여정Journey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웰니스&커넥션Wellness&Connections,
선주민 문화Indigenous Culture로 나누어집니다. 해당 테마에
대한 의미는 각 페이지의 시작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부터
60까지의 숫자에 응집된 내용은 때로는 여행의 일정이고, 때로는
여행의 경험이고, 때로는 인상적인 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행자는 숫자를 따라 그대로 여행을 떠나보거나 지도 위에 인접한
숫자를 조합해 자신만의 여정을 만들어봐도 좋습니다. 실제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을 위해 친절한 요소들로 채우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과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특히 1번 여정은 아주 특별합니다. 한-캐 수교 60주년 명예대사로
위촉된 김연아가 경험한 8박 10일간의 겨울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봅니다. 선수 시절 토론토에서 오랫동안 훈련했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캐나다와 각별한 인연을 맺은 김연아
명예대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로운 캐나다를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여정 끝에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김연아 명예대사처럼
여러분도 캐나다에서 좋은 영감을 가득 채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잊지 못할, 캐나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OPEN SPACE, OPEN HEARTS, OPEN MINDS

© Tourism Nova Scotia / Photographer: Adam Hill

© Northern BC Tourism/Mattias Fredriksson

© Travel Manitoba

© Indigenous Tourism Canada

PAID CONTENT FOR
DESTINATION CANADA

이 콘텐츠는 캐나다를
홍보하기 위해 캐나다관광청이
독자에게 제공합니다.

발행일 2023년 4월 27일
발행처 캐나다관광청
keepexploring.kr
(주)에이지커뮤니케이션즈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natgeokorea.com/traveler
기획 캐나다관광청
편집 디자인 (주)에이지커뮤니케이션즈
사진 유운상, 캐나다관광청

이 책의 모든 저작권은 캐나다관광청과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에
있습니다.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캐나다관광청과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은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정보 혹은 사용 중 발생한 불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3, 9, 17, 24, 39, 48, 49, 50, 51, 52, 53, 55, 56번은 여러 지역에 분포해 지도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JOURNEYS

1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명예대사 김연아와 떠나는 겨울 여행 — 4
2 캐나다를 횡단하다, 비아레일 — 13
3 캐나디안 로키를 우아하게 달리다, 로키 마운티니어 — 14
4 황금빛 여정을 떠나다,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레일로드
5 시적인 풍광이 스친다, 샤를부아 트레인 — 15
6 멈출 수 없는 아름다움, 아가와 캐년 투어 트레인
7 세계 최고의 오로라 성지, 옐로나이프 — 16
8 마법 같은 겨울, 화이트호스 — 17
9 고래야 안녕! — 18
10 희귀한 곰이 사는 세계적인 온대우림,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 — 19
11 순록의 대이동
12 세계 북극곰의 수도, 처칠 — 20
13 풍부한 테루아, 와이너리 — 21
14 음식의 섬,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22
15 랍스터에 대한 모든 것, 쉐디악 베이 크루즈
16 밴쿠버 맛보기 — 23
17 베스트 브루어리 & 펍 10 — 24
18 위대한 캐나다 위스키 — 25
19 메이플 시럽에 진심을 다하다, 퀘벡 주 — 26
20 이들 간의 미식 여행, 퀘벡 시티
21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밴쿠버 & 토론토 — 27
22 역사적인 요새도시, 올드 퀘벡 — 28
23 "풍경 덕분에 황홀해졌어요", 빨간 머리 앤의 그곳
24 캐나다의 겨울 축제 — 29
25 평화에 기여하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26 노바스코샤 주의 그림 같은 두 마을 — 30
27 살아 숨 쉬는 카우보이 문화, 캘거리 스탬피드
28 영화 속 그곳,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29 영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토론토국제영화제
30 머무름을 찬양하다, 페어몬트 호텔 — 31
31 다이내믹 몬트리올 — 32
32 활기찬 밴쿠버
33 빅토리아 음미하기 — 33
34 오타와 감상하기
35 토론토 만끽하기 — 34
36 온타리오 주 드라이브
37 캘거리 지역사회를 경험하는 여행 — 35
38 퀘벡 시티에서 샤를부아까지, 강을 따라가는 로드트립
39 캐나다 최고의 국립공원 — 36
40 캐나다 로키산맥으로 떠나는 8일간의 모험 — 37
41 밴쿠버섬 동부 해안으로 떠나는 탐험 — 38
42 1억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공룡주립공원 — 39
43 경이로운 해안도로, 카봇 트레일

SUSTAINABILITY

44 녹색 열쇠로 문을 여는 호텔 — 41
45 친환경 밴쿠버 여행 — 42
46 밴쿠버섬 북부에서 — 43
47 밴쿠버섬 남부에서 — 44
48 1년 내내 사이클링 — 45

WELLNESS & CONNECTIONS

49 설원 위를 활주하라 — 47
50 골프의 묘미 — 48
51 하이킹으로 캐나다 일주 — 49
52 인생 온천 — 50
53 쉼이 있는 로지 — 51
54 숲속을 걸어요 — 52
55 대자연과 교감하기 — 53

INDIGENOUS CULTURE

56 선주민의 숨결 — 55
57 하이다과이 재발견 — 56
58 창조적 유산 — 57
59 이누이트족의 일상 — 58
60 로키에 깃든 선주민의 발자취 — 59

캐나다 여행 기본 정보 — 60

HOME AWAY FROM HOME

1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명예대사 김연아와 떠나는 겨울 여행

2023년은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다. 이를 기념해 캐나다와 인연이 깊은 김연아가 명예대사로 위촉되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오랜 기간 토론토에서 훈련하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녀에게 캐나다는 아주 각별한 곳이다. 김연아 명예대사가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캐나다로 떠난 겨울 여행. 광활한 대자연 그리고 친절한 현지인과 교감하는 8박 10일의 아름다운 여정을 안내한다.

DAY1 찬란하고 찬연한 보석 레이크 루이스

알버타 주 밴프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레이크 루이스. 캐나다의 첫 국립공원인 밴프 국립공원은 인류사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빙하호수 레이크 루이스는 여름에는 청록의 에메랄드, 겨울에는 순백의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캐나다의 보석 같은 곳이다. 시인은 시를 짓고, 화가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풍광 속에서 여행자는 자신만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는다. 김연아 명예대사처럼! 캐나디안 로키의 산봉우리와 빅토리아 빙하 그리고 레이크 루이스에 둘러싸인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Fairmont Chateau Lake Louise에 머무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경험. 캐나디안 퍼시픽 레일웨이Canadian Pacific Railway는 캐나다를 횡단하는 철로를 부설하며 로키산맥으로의 여행을 권했다. 기차 손님들의 안전한 등반 여정을 위해 스위스 출신의 산악 가이드를 고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레이크 루이스는 등산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고, 산악인과 탐험가를 위한 단층 통나무집을 시초로 한 이 호텔은 현재 유럽의 웅대한 고성처럼 늠름하게 호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레이크 루이스에서 삶의 여정을 탐험하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준다.
fairmont.com/lake-louise

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에어캐나다를 타고 밴쿠버공항까지 약 10시간, 연결편을 타고 캘거리공항까지 약 2시간 30분, 캘거리에서 차를 타고 레이크 루이스까지 약 2시간 소요된다. 태평양과 맞닿은 서부 그리고 대서양과 맞닿은 동부를 연결해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긴 7800km 길이의 1번 국도를 따라 밴프 국립공원 입구로 갈 수 있다.

국립공원 입장하기 캐나다의 국립공원에 방문하려면 국립공원 패스National Park Pass가 필요하다. 밴프 국립공원 내에 있는 레이크 루이스 역시 마찬가지. 패스는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 방문자센터에서 살 수 있으며, 차량을 운전해서 오는 경우 국립공원 입구에서 또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banfflakelouise.com/park-pass-purchase

DAY2 레이크 루이스에서 보내는 낭만적 6시간

눈 덮인 로키의 산봉우리와 장엄한 빅토리아 빙하 그리고 설원으로 변신한 레이크 루이스를 낭만적으로 경험하는 방법.

오전 9시 SLEIGH RIDES 로키 카우보이의 썰매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이곳의 전통적인 썰매는 마치 마차 같기도 하다. 터프한 듯 자상한 캐나디안 로키의 카우보이 후예가 이끄는 썰매를 타고 호숫가를 따라 달린다. 좌석에 깔린 붉은 천과 담요 덕분에 포근하고 편안한 상태로 새하얀 레이크 루이스의 풍경에 찬찬히 빠져든다. 호반 길의 끝자락에서 빙벽을 마주하며 썰매는 얼어붙은 호수 위로 향한다. 언 호수 위에 쌓인 눈을 밟으며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보는 빅토리아 빙하와 그 반대편으로 펼쳐지는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의 전경은 더없이 낭만적. 썰매 시즌은 12월 중순에 시작해 날씨와 적설량에 따라 4월까지 이어진다. 소요 시간은 45분~1시간 정도이며, 예약 데스크는 호텔의 로어 로비Lower Lobby 층에 자리한다.

오전 11시 ICE SKATING 피겨 여왕처럼 아이스 스케이팅

1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언 호수의 일부 구역을 정빙해 아이스링크로 운영한다. 호텔 로비의 프런트 데스크 옆에 위치한 샤토 스키 앤 스노 렌탈숍Chateau Ski & Snow Rental Shop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대여할 수 있다. 스케이트의 경우 캐나다의 국민 스포츠인 아이스하키용이다. 로키산맥의 품 안에서 빅토리아 빙하에 안기듯이 나아가고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를 활보하며 낭만을 누린다. 그러다 보면 김연아 명예대사가 레이크 루이스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 한 이유를 몸소 알게 될 것이다.

오후 1시 AFTERNOON TEA 애프터눈 티의 전통

호텔 내 페어뷰 레스토랑Fairview Restaurant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밖으로 레이크 루이스를 바라보며 차와 다과를 음미하는 낭만적 시간. 딸기잼, 레몬커드, 마멀레이드와 데본셔 크림을 곁들인 따뜻한 스콘과 랍스터, 참치, 와규 등 다채로운 핑거 샌드위치 그리고 마카롱과 케이크 같은 제과류가 층층이 쌓인 삼단 트레이가 등장한다. 차는 원하는 종류를 선택하면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있으며,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오후 3시 WINTER ACTIVITY 호반에서, 호수에서

아침에 썰매 탔던 길을 이번에는 천천히 산책한다. 호숫가를 따라 걷는 대신 언 호수를 가로지르며 컨트리스키를 타거나 스노슈잉을 하는 것도 좋다. 가이드 투어도 가능하며, 장비는 샤토 스키 앤 스노 렌탈숍에서 빌릴 수 있다. 이후에는 레이크 루이스를 배경으로 한 아이스바에서 얼음으로 조각한 의자에 앉아 얼음 잔에 담긴 칵테일을 홀짝이거나 핫초콜릿 혹은 멀드 와인을 마시며 몸을 녹인다.

연아가 전하는 레이크 루이스에서의 스케이팅 팁

"스케이팅이 처음이시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불안한 나머지 땅만 보며 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면 스케이팅이 더욱 어렵거든요. 이럴 때 저는 저 멀리 앞을 보고 걸어가라고 말해주곤 해요. 레이크 루이스에서야말로 이 조언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 펼쳐진 장관을 바라보면서 점차 다가가다 보면 절로 스케이팅이 될 거예요!"

DAY3
밴프 국립공원 탐험하기

하이킹, 미식, 디지털 아트 등 다채롭고 이채롭게
밴프 국립공원 탐험에 나선다.

아침 대자연과 호흡하다, 존스턴 캐년 아이스워크
Johnston Canyon Icewalk

밴프 국립공원의 하이킹 명소 중 하나인 존스턴 캐년 아이스워크. 수천 년 동안 계곡이 흐르며 석회암 침식으로 형성된 해발 2500m 협곡이 겨울이면 눈과 얼음을 입으며 색다른 풍광을 자아낸다. 김연아 명예대사처럼 설경을 품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본다. 디스커버 밴프 투어스Discover Banff Tours의 가이드는 이곳의 지질과 식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편도 약 1.1km 거리의 로어 폭포Lower Falls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30분 정도 걸린다. 빙벽을 오르는 아이스 클라이머의 모험을 엿볼 수 있는 어퍼 폭포Upper Falls까지는 왕복 5.4km로 약 3시간 소요된다. 아이젠을 대여해주며, 핫초콜릿과 메이플쿠키는 덤이다. 투어는 매년 기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시기가 달라지지만 11월부터 4월까지,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한다. 성인 1인 기준 89캐나다달러부터. banfftours.com

늦은 점심 먹고 마시고 알아가라, 잇 더 캐슬 앳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
Eat the Castle at The Fairmont Banff Springs Hotel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 내 레스토랑 네 군데에서 알버타 주의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맛보고, 이동하는 중간중간 구석구석 알아가는 약 3시간의 투어. 각 레스토랑의 셰프가 직접 나와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투어를 함께하는 여행자와도 맛있는 교류를 맺는다. 알버타 푸드 투어스Alberta Food Tours의 가이드가 호텔의 탄생 비화와 역사뿐 아니라 건축과 예술까지, 알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쳤을 호텔 곳곳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유령이 나타났다는 홀과 화석이 박혀 있던 독특한 계단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른다. 금요일 오후 3시 시작, 성인 1인 기준 185캐나다달러. albertafoodtours.ca

가는 방법 레이크 루이스에서 존스턴 캐년 아이스워크까지 차로 약 30분 소요된다. 존스턴 캐년 아이스워크에서 밴프 타운까지도 차로 약 30분 걸린다.

머물 곳 캐나다인 퍼시픽 레일웨이가 19세기 말부터 캐나다 전역에 지은 호텔 중 가장 처음 문을 연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1888년에 지은 건물과 1988년에 지은 건물이 연결된 통로는 100년의 시간을 넘나든다. 캐나다 국립 사적지로 지정된 호텔 건축물은 그 자체가 역사다. 스코틀랜드 버로니얼Scottish baronial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데, 머무는 내내 마치 귀족의 대저택에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다. 야외 온수풀 부근에서 만날 수도 있는 야생 사슴은 마치 호텔이 자기 집인 양 꽤 자주 출몰한다. fairmont.com/banff-springs

그레이프스의 헤니 셰프가 직접 소개하는 샤퀴트리

"허큘hercule은 바스크 지역의 양과 염소 젖으로 만든 경성 치즈이고, 마온mahón은 스페인 발레아레스제도의 반경성 치즈입니다. 팔레타paleta는 곡식 등을 먹고 자란 흑돼지 앞다릿살을 사용한 이베리코 하몽입니다. 벨로타bellota는 야생 도토리를 먹고 자란 흑돼지의 뒷다릿살로 만든 이베리코 하몽입니다. 여기에 스페인산 고달 올리브, 마코나 아몬드, 직접 만든 금귤 콩포트, 머스터드를 곁들였습니다."

스톡 푸드 앤 드링크
STOCK Food & Drink
호텔 로비층에 있는 스톡 푸드 앤 드링크에서 투어가 시작된다. 갓 만든 두 종류의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레스토랑 내에서 직접 재배해 탄소 배출이 없는 유기농 채소를 넣은 것이 인상적이다. 원한다면 현지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레이프스Grapes
성에 숨겨진 공간 같은 와인바로 올 시즌 콘셉트는 스페인이다. 병아리콩이 듬뿍 들어간 소프리토 소스를 곁들인 판콘 토마테가 가끔 생각날 정도로 맛있었다. 샤퀴트리를 준비해준 수셰프는 한국 출신의 헤니(이서영). 스페인의 알바리뇨 품종으로 빚은 유기농 화이트와인 사라테 렌토 비코Zarate Rento Bico와 샤퀴트리의 페어링도 훌륭하다.

1888 찹 하우스1888 Chop House
유명한 알버타 주의 소고기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달한 야생의 사냥감 등으로 요리하는 스테이크 하우스. 고기 대신 오렌지와 페타 무스 등이 잘 어우러진 비트 샐러드를 맛본다. 비트로 만든 가스트리크gastrique 베이스의 절인 샬롯shallot 드레싱이 새콤달콤하다. 여기서 가이드는 알버타 주를 대표하는 7가지 음식을 알려주었다. 꿀, 소고기, 들소bison 고기, 사스카툰 베리Saskatoon berry, 카놀라유, 비트 같은 뿌리채소.

런들 바Rundle Bar
아르데코 양식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바. 책장인 척하는 벽면에 숨어 있는 문을 열면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먹은 브란트 레이크 와규 비프 카르파초Brandt Lake Wagyu Beef Carpaccio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투어를 모두 마친 후 가장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카르파초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기억이 난다.

캐나디안 로키를 바라보며 떠오른 음악
"영화 〈조Zoe〉를 보며 알게 된 베이온Bayonne의 'Lates'를 즐겨 듣는데, 이곳에서 로키산맥을 바라볼 때도 생각났어요. 이번 여행 중에 자주 떠오른 노래예요."
- 김연아 명예대사

저녁 낮과 밤의 경계에서, 밴프 곤돌라와 나이트라이즈

곤돌라를 타고 설퍼산Sulphur Mountain에 오른다. 8분 만에 도착한 표고 2281m 서밋 빌딩. 전망대에서 360도로 바라보는 로키산맥의 장엄함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옥상층에서 약 2km 길이의 보드워크를 따라 해발 2256m 샌슨스 피크Sanson's Peak까지 가볍게 하이킹할 수 있다. 일몰이 시작될 무렵, 낮과 밤의 경계에서 분홍빛으로 물든 로키산맥의 색조가 감성을 두드린다. 겨울에는 해가 지면 나이트라이즈Nightrise가 시작된다. 서밋 빌딩의 층마다 다른 주제로 조명과 음악, 비디오 프로젝션과 멀티미디어 효과가 어우러져 설퍼산의 밤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 옥상층의 디지털 아트는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해 형태를 바꾸고, 산의 밤공기를 증폭하는 음속 쌍안경sonic binoculars을 통해서 낮에는 잘 들을 수 없었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 나이트라이즈 전반에는 태곳적부터 로키산맥을 고향으로 여겨온 선주민 스토니 나코다Stoney Nakoda의 언어가 담겨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순 없지만 강렬한 몰입감에 휩싸인다. 나이트라이즈 너머로 내려다보이는 밴프 타운의 야경도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 겨울철에는 곤돌라 티켓에 나이트라이즈 관람이 포함되며, 티켓 가격은 유동적이다. banffjaspercollection.com/attractions/banff-gondola

DAY4
다각도로 바라본 **캐나디안 로키**

지상에서 아침식사를 즐기며 바라보고, 하늘에서 헬리콥터에 탑승해 바라보는 캐나디안 로키. 저마다 색다른 풍광을 선사한다.

360° Dome의 로이 리 셰프와의 Q&A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의 더 버밀리온 룸The Vermillion Room에서는 독특한 다이닝 공간인 360° 돔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아침식사를 하며 한국인 로이 리(이민성) 셰프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직접 360° 돔에 대해 물었다.

360° 돔을 소개해주세요.
360° 돔은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어퍼 가든 테라스Upper Garden Terrace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돔에서 360도로 캐나디안 로키의 전망을 즐기며 특별한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식사는 선라이즈 브렉퍼스트, 브런치, 애프터눈 티, 디너, 이렇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선라이즈 브렉퍼스트의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첫 번째 코스로 새벽에 갓 구운 머핀과 데니시, 크루아상 같은 페이스트리류와 오가닉 요거트로 만든 파르페가 나갑니다. 두 번째 코스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산 연어를 훈제한 다음 직접 만든 베이글과 요리한 오픈 샌드위치, 캐나다의 대표 음식이라 할 수 있는 피밀 베이컨Peameal Bacon을 넣은 클래식한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세 번째 코스로는 커피나 다양한 차와 함께 한입에 먹기 좋은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360° 돔에서 맛볼 수 있는 셰프님의 시그니처 요리를 안내해주세요.
브런치 메뉴인 송어 그라블랙스입니다. 소금과 설탕, 각종 향신료를 사용해 하루 정도 송어를 절이면 소금의 짠맛과 설탕의 단맛 그리고 모든 향신료의 향미가 송어의 살에 스며들어 환상적인 풍미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오렌지, 직접 만든 레몬오일소스, 각종 허브와 송어알까지 함께 플레이팅합니다. 강에서 태어난 송어가 험난한 바다로 나가 성장한 다음 따스한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추운 겨울이 지나고 포근한 봄이 다가오는 시기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응시한 로키산맥, 알파인 헬리콥터
밴프 타운 인근의 캔모어Canmore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캐나디안 로키산맥을 가까이 들여다본다. 김연아 명예대사가 경험한 코스는 알파인 헬리콥터Alpine Helicopter의 아시니보인산과 빙하 투어Mt Assiniboine & Glaciers Tour. 로키산맥의 산봉우리에 쌓인 만년설과 빙하 등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장엄한 풍광이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시선에서 펼쳐진다. 헤드셋에서 지나치는 산봉우리와 주변 풍경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이라이트는 캐나디안 로키 남부에서 가장 높은 해발 3618m 아시니보인산. 대자연에 깊이 몰입하다 보면 35분이라는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진다. 김연아 명예대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광을 눈여겨보려면 선글라스를 챙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성인 1인 기준 390캐나다달러. alpinehelicopter.com

여기저기 둘러보기 이곳에서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온다고 하여 서프라이즈 코너라는 지명이 붙었다.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서 머물며 바라본 전망도 근사하지만, 광활한 풍광에 안겨 있는 호텔은 그 자체로 그림 같다. 현지인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보 폭포Bow Falls는 아주 거대하고 드높은 폭포가 아니어서 오히려 좋았다. 언 수면 위를 걸을 땐 바스락거리는 얼음의 묘한 태동이 느껴진다. 마릴린 먼로 주연의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에 이 폭포가 등장했다고 한다. 북미의 서부에서는 풍화 작용으로 기묘한 형태를 띤 바위를 후두스라고 부른다. 밴프 후두스Banff Hoodoos는 울창한 숲속에서 마치 주변의 나무처럼 서 있다(나무인 척하는 것 같기도 하다). 런들산과 보강이 만든 작은 섬을 휘감아 흐르는 물줄기까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온해진다. 높은 건물이 없어 캐스케이드산Cascade Mountain이 훤히 보이는 밴프 애비뉴에는 다채로운 숍이 즐비해 구경하며 쇼핑하는 재미가 그득하다. banfflakelouise.com

DAY5
쉼표의 **캘거리**

알찬 여행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도록 일정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 쉼표를 찍기 좋은 적기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198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캘거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쇼핑할 이유 알버타 주는 주세가 없어 같은 제품이라면 다른 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크테릭스, 캐나다구스 등 눈여겨본 아이템이 있다면 밴프 타운이나 캘거리 등지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알버타 주를 떠나기 전에!

DAY6
오로라의 성지 **옐로나이프**

노스웨스트 준주의 주도인 옐로나이프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선정한 오로라를 관측하기 좋은 곳이다. 3박 이상 머무른다면 오로라를 볼 확률이 무려 95%. 그래서 옐로나이프에서 3박을 보내기로 한다.

선주민의 지혜, 오로라 빌리지
선주민이 운영하는 오로라 빌리지는 오로라 호수Aurora Lake에 자리한다. 캐나다구스 외투를 비롯해 방한복과 방한화 등을 대여해주고, 바라클라바는 선물로 증정해 기념품으로 챙겨 올 수 있다. 약속한 시간에 투어 버스가 호텔로 픽업을 오고, 30여 분 달려 오로라 빌리지에 닿는다. 선주민의 전통 방식으로 지은 티피Teepee 안에서 장작불을 지피며 핫초콜릿을 마시거나 챙겨 온 컵라면을 먹으며(티피 내에서만 취식 가능) 포근하게 오로라를 기다릴 수 있다. 김연아 명예대사 역시 오로라를 고대하며 티피 안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는 후문. 밖에서 함성이 들리면 오로라가 나타난 것이다. 선주민의 전통 썰매를 닮은 온열 의자는 따뜻한 온도가 유지돼 여기 앉아 얼굴만 내민 채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360도 회전하므로 원하는 방향에서 오로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auroravillage.com

가는 방법 밴쿠버와 캘거리에서 옐로나이프까지 비행기로 각각 약 2시간 30분, 2시간 소요된다. 옐로나이프공항에서 주요 호텔이 자리한 다운타운까지는 차로 약 10분 걸린다.

머물 곳 옐로나이프를 방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3세 국왕이 묵었던 익스플로러 호텔 Explorer Hotel. 밤에 오로라를 보기 위해 호텔을 떠나기 전, 객실의 커튼을 열면 유리창을 통해 석양으로 물든 탁 트인 하늘이 기다린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아래 설원처럼 보이는 곳은 얼어붙은 호수다. 시그니처 스위트인 더 오로라에는 창문을 향해 망원경이 놓여 있으며 객실 내에서도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explorerhotel.ca

유용한 정보 노스웨스트 준주 관광청 웹사이트 spectacularnwt.com

"끝없이 펼쳐지는 캐나디안 로키와 옐로나이프의 황홀한 오로라 등 캐나다에서 대자연을 마주할 때마다 그 스케일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비로움과 동시에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묘한 기분에 멍하니 바라만 보게 되었어요."

-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명예대사 김연아

오로라는 캐나다!

오로라 빌리지의 다이닝홀에 걸려 있는 오로라 사진 대부분은 천체사진가 권오철 작가의 작품이다. 운이 좋게도 마침 오로라 촬영을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는 권오철 작가를 만날 수 있었다. 오로라가 버킷리스트인 여행자에게 권오철 작가의 한마디를 전하고 싶다. "오로라를 보고 싶다면 캐나다에 와야 한다!"

DAY7
교감을 나눈다는 것

오로라 빌리지에서는 밤에 오로라 감상뿐 아니라 낮에 개썰매와 스노슈잉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의 선주민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auroravillage.com

아북극의 전통 이동 수단 경험하기

12마리가 이끄는 개썰매는 아주 빠르지 않으므로 겁이 많은 사람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오로라 빌리지 호수 주위 눈길을 도는 약 15분의 코스. 가장 앞에서 달리는 개는 똑똑해서 머셔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가장 뒤에서 달리는 개는 제일 힘이 센 녀석이라고 한다. 조금 더 속도감을 즐기고 싶다면, 개썰매의 마지막 시간대를 선택하도록. "집에 가자(Go Home!)"라는 말에 개들이 더욱 빠르게 달린다고 한다.

선주민과 우정 다지기

선주민 데네Dene족의 알빈 란드리Arvin landry가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소박한 공연을 펼친다.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교류할 수도 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가 오로라 빌리지에서 만난 일명 '독수리 오형제'라는 우리나라 손님들의 일화를 들려줄 것이다. 오로라 사진도 함께 보여주는데, 꽤나 감동적이고 동시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수건돌리기와 비슷한 게임을 알려주고 깜짝 선물까지 선사하기도 한다. 오로라를 기다리며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시간이다.

DAY8
현지인처럼 지내보기

옐로나이프의 다운타운과 올드타운을 누비는 시티투어, 마치 현지인의 집에 초대받은 것 같았던 오로라 투어. 모두 버킷리스트투어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준 따스하고 유쾌한 가이드 트레이시 테리엔Tracy Therrien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된다. bucketlisttour.com

역사적인, 올드타운

차를 타고 올드타운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이곳에 생긴 첫 번째 은행과 처음 문을 연 식당 와일드캣 카페Wildcat Café 등을 지난다. 언 호수 위에서 수상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옐로나이프에 도로가 놓이기 전에는 외부 지역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경비행기였다고 한다. 식량과 의약품 등을 수송하기 위해 혹독한 이곳 하늘을 날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는 부시 파일럿 기념비Bush Pilots Monument. 나무 계단을 오르면 기념비가 서 있는 전망대에 다다르고, 광활한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Great Slave Lake가 펼쳐진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넓은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는 그 크기가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여기서 낚시한 물고기로 요리한 블록스 비스트로Bullock's Bistro의 음식은 식당의 30년 역사가 맛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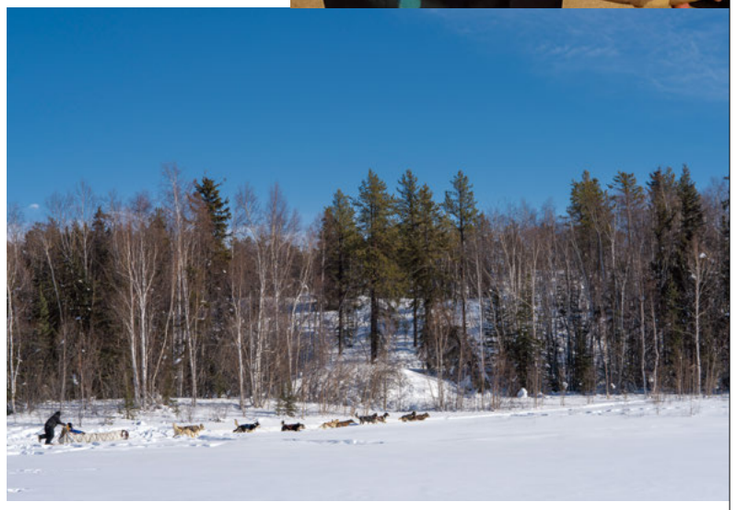
겨울에는 없던 길이 생긴다, 아이스 로드

겨울에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가 얼면 새로운 길이 된다. 현지인처럼 차를 타고 언 호수 위를 가로지른다. 그러다 잠시 멈춰 망망대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투명하게 드러난 빙판에 누워 맘껏 사진을 찍어보자.

우리만의 오두막, 오로라

다운타운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숲에 홀로 자리한 작은 오두막. 가이드이자 주인장인 트레이시가 직접 모은 빈티지한 소품으로 가득 찬 포근하고 아늑한 곳이다. 트레이시가 야식으로 피시차우더 수프와 이곳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먹는 빵인 배넉bannock을 직접 만들어 준다. 빵은 다음 날 아침식사로 먹으라고 추가로 챙겨주기도 했다. 물개 가죽 등으로 만든 이누이트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등 예상치 못한 추억도 쌓는다. 오로라가 나타나면 마당으로 나가 하염없이 바라보면 된다.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곳이었고, 우리만 알고 싶은 장소였다.

축제를 즐기자 동네 아이들을 위해 작게 만든 요새가 점차 커지고 정교해지며 흥미진진한 지역 축제로 거듭났다. 스노킹스 윈터 페스티벌Snowkings' Winter Festival 이야기다.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의 옐로나이프만Yellowknife Bay에서 축제의 크루들이 이곳의 눈과 얼음으로 성을 짓는다. 건설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투어도 운영한다. 축제의 개막은 성이 완공된 이후인 3월이다. 얼음 미끄럼틀은 엉덩이를 썰매 삼아 타고, 얼음으로 만든 무대 위에서는 신나는 공연이 열린다. 성벽 바깥에 전 세계에서 온 예술가들이 눈으로 만든 조각 작품도 전시한다. 2023년에 열린 제28회 축제에는 한국 작가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DAY9 / DAY10
행복한 **일상의 삶**

에어캐나다를 타고 옐로나이프에서 밴쿠버로, 밴쿠버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며 8박 10일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다. 캐나다 관광청이 이번 여정을 기획하며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김연아 명예대사가 그저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녀 역시 앞으로 이 여정을 함께할 여행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말을 남겼다.

"이번 캐나다 여행은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한 특별한 경험이 많았어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꼭 한 번 캐나다의 대자연과 커뮤니티 속으로 떠나보셨으면 해요. 여정을 통해 좋은 영감을 채운 다음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행복한 삶을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연아 명예대사

김연아 명예대사가 도란도란 얘기하는 캐나다 여정

여행을 떠나기 전에, 레이크 루이스에서 스케이트를 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 인생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스케이팅을 해왔지만, 선수의 길에 접어든 이후에는 즐기기 위한 스케이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긴장된 상태에서 날마다 해내야만 하는 목표가 있었죠. 은퇴한 후 동료 선수가 캐나다 레이크 루이스에서 꼭 스케이트를 타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었어요. 사진과 영상을 찾아보고 '그래, 스케이터라면 언젠가 한 번쯤 저런 멋진 곳에서 스케이팅 해봐야 하지 않겠어? 꼭 가봐야겠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실현하게 되어 굉장히 기뻤습니다. 로키산맥과 빅토리아 빙하 그리고 레이크 루이스가 이루는 수려한 절경을 감상하며 흩날리는 눈 속에서 즐긴 스케이팅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번 여정 덕택에 캐나다로 다시 여행을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요. 새롭게 다가온 것이 있었나요?
캐나다는 익숙한 나라이고 두 번째 집과 같아요. 꽤 오랜 기간 훈련을 한 만큼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들었던 선수로서의 삶이 스며 있는 곳이에요. 선수 시절 수도 없이 캐나다를 오가며 비행기에서 로키산맥을 내려다봤을 거예요. 당시에는 무슨 산인지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같은 풍경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걸 인지하고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지 깨달았죠. 지금은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여정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캐나다의 면면을 깊이 알아갈 수 있었어요. 한층 더 마음이 열린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JOURNEYS

내 안을 채우는 여정

캐나다의 모든 여행 장소마다 깊은 교감을 나누며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향유합니다.
경이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야생의 시간, 풍부한 문화유산과 현지인들과의 만남까지.
그 모든 여정을 마칠 즈음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의 내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Rocky Mountaineer and Noel Hendrickson

기차를 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를 더 낭만적으로 누비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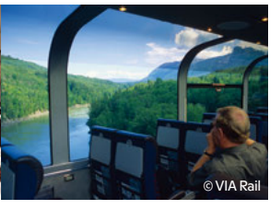
2 캐나다를 횡단하다 비아레일

THEME ●여정 ●지속가능성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viarail.ca
캐나다인 노선, 4일간의 여정

비아레일VIA Rail은 캐나다 동부와 서부를 가로지르는 약 1만4,000km 길이의 철도를 일컫는다. 여러 노선 중 캐나디안The Canadian은 기차 여행의 로망을 실현해주는 최고의 코스로 꼽힌다. 캐나디안 열차는 동부의 토론토와 서부의 밴쿠버 사이 장장 4,466km 거리를 밤낮으로 4일 동안 달린다. 도시에서 시작된 풍경은 야생의 숲과 호수를 지나 대초원에 이르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할 무렵 눈앞에 장대한 로키산맥이 나타난다. 기차의 유리창은 지붕까지 이어져 광활한 대자연의 풍광을 드넓게 담는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캐나다 최고의 창문Canada's Best Window'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호텔 같은 편안함

비아레일의 캐나디안 노선에는 프레스티지Prestige, 슬리퍼 플러스Sleeper Plus, 이코노미Economy, 이렇게 세 종류의 객실이 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는 밤에 차창을 마주보는 침대로 변신하는 모듈식 가죽 소파, 샤워시설을 갖춘 개별 화장실 등을 구비한 너른 객실이다. 식사 시간과 투어 예약 등 소소한 모든 일을 전담 컨시어지가 처리해주므로 여행자는 오롯이 창밖 풍경에만 집중할 수 있다. 열차의 주방에서 셰프가 갓 만든 풍성한 요리가 풍경과 어우러지는 순간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

© Rocky Mountaineer

3 캐나다인 로키를 우아하게 달리다 로키 마운티니어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4월부터 10월까지 로키산맥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만 운행하는 로키 마운티니어Rocky Mountaineer. 유리 돔으로 이뤄진 기차는 평균 속도 약 50km/h로 천천히 이동하므로 변화무쌍한 캐나다인 로키의 풍광을 찬찬히 감상할 수 있다. 열차는 풍경을 볼 수 있는 낮에만 운행하므로 여행자는 밤이 되면 중간 기착지의 호텔에서 숙박한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기차에 올라 여정을 이어간다. 열차의 각 칸마다 '호스트'라고 불리는 승무원이 로키 마운티니어가 지나는 곳곳의 역사와 문화, 산과 폭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기차 속도를 줄이고 기내 방송을 통해 어느 방향에서 어떤 동물을 볼 수 있는지 안내해주기도 한다. 함께 탑승한 셰프가 지역의 제철 재료로 정성스럽게 요리한 아침과 점심을 맛볼 수 있으며 커피와 차, 스낵 등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함께 탑승한 이들과 교류까지, 즐거움에 끝이 없다!

YOUR CHOICE

로키 마운티니어에는 네 개의 노선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퍼스트 패시지 투 더 웨스트First Passage to the West(이하 FPW)'이다. 캐나디안 로키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는 구간으로 다양한 패키지가 있으니 각자의 일정과 취향을 고려해서 여정을 선택하면 된다. 로키 마운티니어에서 소개하는 기본 여정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밴쿠버에서 출발해 중간 기착지인 캠룹스Kamloops에서 1박을 하고 알버타 주의 밴프 또는 레이크루이스로 향하는 2일 여정이다. 다른 노선과 결합해 재스퍼와 휘슬러까지 둘러보는 12박 13일의 기나긴 여정도 물론 존재한다!

rockymountaineer.com
FPW 노선,
1박 2일부터 12박 13일까지

Tip

같은 금액 로키 마운티니어는 전 세계 어디에서 예약을 해도 티켓 가격이 동일하다. 공식 웹사이트 혹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9월 주목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매년 9월에 시작된다. 다음 해 출발 기차편을 미리 예약하면 풍성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모션이 줄어든다고 하니 서두르는 편이 좋겠다.

독특한 기념품 숙박을 위해 기차에서 내리기 전 기념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열차에서 받을 수 있다. 기차 모형이나 컵에 담겨 있는 로키 마운티니어만의 티 등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품이 우리를 기다린다.

© Jean-François Frenette

5 시적인 풍광이 스친다 샤를부아 트레인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여름 가을

traindecharlevoix.com
왕복 8시간 혹은 정차하는 마을에 머물며 일정을 길게 조정할 수 있다.

BE CONSCIOUS

퀘벡의 몽모랑시 폭포와 베생폴 마을을 오가는 수소 열차도 운행한다. 생태 농업Eco-Agro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면, 여정 중에 15가지 산물을 맛볼 수 있다. 선물로 리유저블 백도 증정한다.

© Shutterstock

세인트로렌스강St. Lawrence River을 따라 4시간 30분 동안 약 125km를 달리며 샤를부아Charlevoix 지역을 여행하는 여정이다. 퀘벡 주의 몽모랑시 폭포Montmorency Falls에서 출발해 라말베La Malbaie에 도착하는 '샤를부아 트레인'은 7개의 그림 같은 마을에 정차하고 강과 바다, 근사한 절벽을 지나며 시적인 전원 풍광을 선사한다. 기차가 처음 멈춰 서는 생탄드보프레Saint-Anne-de-Beaupré는 북미에서 3대 순례지로 여겨진다. 7월 26일, 성모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Saint-Anne의 대축일에는 약 100만 명이 모여들 정도. 순례자들이 찾는 생탄드보프레 성당은 1658년 지어진 유서 깊은 곳이다.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도시 베생폴Baie-Saint-Paul은 캐나다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아트 갤러리를 보유한 곳으로 문화 수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베생폴에서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은 항구도시 라말베는 휴양지로 유명하다. 샤를부아 지역의 저명한 레스토랑 중 대다수가 이곳에 자리한다. 세인트로렌스강이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언덕에 위치한 페어몬트 르 마누아 리슐리외Fairmont Le Manoir Richelieu에 머무는 경험도 한 편의 감성적인 시를 읽는 것과 같다.

© Hans G Pfaff

4 황금빛 여정을 떠나다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레일로드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여름 가을

1900년 미국 알래스카 주 스캐그웨이Skagway와 캐나다 유콘 준주의 화이트호스Whitehorse를 연결하는 약 177km 길이의 협궤 철도가 개통했다. 이름하여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레일로드White Pass & Yukon Route Railroad. 유콘의 클론다이크Klondike 금광에서 캔 황금을 수송하기 위해 부설된 이 철로에는 혹독한 기후와 험난한 지형을 극복한 도전 정신이 배어 있다. 1982년 광산이 폐쇄되며 철도 운영도 중단되었지만, 1988년 여행자를 위해 일부 구간이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알래스카 주의 스캐그웨이와 유콘 준주의 카크로스Carcross를 오가는 '베넷 시닉 저니Bennett Scenic Journey'는 왕복 약 193km, 총 8시간이 걸리는 코스. 스캐그웨이 항구에서 출발해 폭포와 협곡, 빙하를 지나 해발 1000m를 넘으면 골드러시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베넷Bennett에서 45분간 경유한다. 이곳은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레일로드를 이용하거나 칠쿠트 트레일Chilkoot Trail을 하이킹해야만 닿을 수 있는 과거의 마을이다. 이후 다시 열차를 타고 카크로스로 향하는 길에 샌드위치와 칩, 디저트 등이 포함된 점심식사가 나온다. 카크로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막으로 불리는 사구가 있다. 약 11만 년 전 빙하호가 있던 자리에 물이 마르며 바닥을 드러냈고, 근방에 있는 베넷 호수의 모래가 쌓이면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샌드보딩을 즐기거나 베넷 호수에서 낚시를 하며 여정을 마무리해도 좋다.

wpyr.com
8시간

알아두면 재밌는 잡학사전

1994년 캐나다 토목학회와 미국 토목학회가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레일로드를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토목 공학 랜드마크로 지정했다. 파리의 에펠탑과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 White Pass & Yukon Route

6 멈출 수 없는 아름다움 아가와 캐년 투어 트레인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여름 가을

온타리오 주 북부의 수생마리Sault Saint Marie와 아가와 캐년Agawa Canyon을 오가는 왕복 360km, 약 10시간의 여정이다. 아가와 캐년 투어 트레인에서는 거친 황야를 개척한 선주민 오지브웨이족Ojibway뿐 아니라 이곳을 모험한 탐험가 등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국어 안내 방송으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객차에 설치된 평면 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다른 시선으로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묘미. 특히 몬트리올강 다리에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왕세자 시절인 1920년 열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다가 가을 단풍 풍광에 감탄해 기차를 잠시 멈추고자 비상줄을 잡아당겼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아가와 캐년 파크에 도착하면 1시간 30분 동안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하거나 전망대에 올라 12억 년 전 생성된 협곡의 비경을 한눈에 담아보자 .

agawatrain.com
10시간, 성인 140캐나다달러

© Destination Ontario

오로라를 품 안에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입자와 대기의 기체가 만나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는 순간.

© Aurora Village

7 세계 최고의 오로라 성지 **옐로나이프**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 선주민 문화

SEASON 여름 가을 겨울

북위 62도에 위치한 노스웨스트 준주의 옐로나이프는 미국항공우주국 NASA이 세계 최고의 오로라 관측지로 손꼽은 곳이다.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여름), 11월 말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겨울) 연평균 약 240일 동안 오로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로라 출현 빈도가 이처럼 높은 이유는 깨끗한 하늘과 낮은 습도 덕분. 또한 옐로나이프는 사방 1000km 내에 산맥이 존재하지 않는 평원이라서 산에 갇힌 구름이 오로라를 가릴 확률이 적은 편이다. 게다가 빛 공해가 없어 칠흑같은 암흑 속에서 오로라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오로라가 항상 붙박이처럼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출현 빈도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옐로나이프에서는 3박 이상 체류 시 95%, 4박 이상 체류 시 98%의 높은 확률로 오로라를 조우할 수 있다.

©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 James MacKenzie

Tip

여름과 겨울의 차이? 오로라 현상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추운 겨울에 비해 쾌적한 여름이 활동하기 좋은 편. 이 시기에는 위도가 높은 옐로나이프에서 일찍 물든 고운 단풍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겨우내 얼어 있던 호수가 녹으면서 수면에 데칼코마니처럼 반영된 쌍둥이 오로라까지 펼쳐진다. 오로라 관측 외에도 여름에는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겨울에는 개썰매나 스노슈잉 같은 설상 레포츠를 할 수 있다. 선주민 문화 체험이나 낚시, 트레킹 등은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blog.naver.com/spectacularnwt
4일간의 여정

추천 일정(4박) 취향에 따라 오로라를 관측하는 장소와 방법을 고를 수 있다. 오로라 빌리지 같은 '오로라 사이트'에서 이틀, 차를 타고 오로라를 찾아 떠나는 '오로라 헌팅' 이틀. 이렇게 4박 일정이라면 다채로운 오로라를 이채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프라이빗한 경험을 원한다면 로지에 묵으며 오로라를 감상해보자.

가는 방법 오로라가 자주 나타나는 고위도 지역은 남북위 60~80도에 위치해 대부분 교통이 불편하지만, 옐로나이프의 경우 정기 항공편을 이용해 비교적 편안하게 닿을 수 있다. 에어캐나다를 타고 인천에서 밴쿠버까지 약 10시간, 밴쿠버에서 옐로나이프까지 약 2시간 30분 소요된다.

8 마법 같은 겨울 **화이트호스**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 선주민 문화

SEASON 가을 겨울

유콘 준주에서도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여름 오로라를, 11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겨울 오로라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여름에는 기차 여행은 물론 노랗게 물든 단풍 감상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겨울 오로라 여행 일정을 소개한다. 화이트호스의 피시 레이크Fish Lake 또는 채번 레이크 로드Chadburn Lake Road로 향하는 루트에서 황홀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오로라를 만나기 위해 화이트호스로 여행을 떠난다면 다음의 3박 4일 일정을 참고할 것. 아래 여정에 굳이 써놓지 않았지만, 매일 밤 오로라의 마법에 걸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Robert Postma

1일차
화이트호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텔이든 오두막 혹은 산장이든 짐을 풀고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산책에 나선다. 카페에서 현지인과 어울리는 것도 즐겁다. 예술 애호가라면 방문자센터에서 '유콘 시대 예술 모험Art Adventures on Yukon Time' 책자를 챙겨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해도 좋다. 선주민의 전통문화 역시 호기심을 자극한다. 야생에서 채집한 재료를 사용해 독특한 풍미를 뽐내는 요리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말자.

2일차
썰매 모험

직접 개썰매를 몰아볼 시간이다. 기본 기술을 전부 가르쳐주므로 걱정은 금물. 함께하는 개들과 즐겁고 신나게 교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그저 편안하게 앉아 개썰매를 만끽할 수도 있다. 2월에는 유콘 퀘스트 국제 개썰매 경주Yukon Quest Dog Sled Race를 놓치지 말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썰매 레이스로, 이 경주를 직접 보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일 것이다.

3일차
겨울 탐험

이제 스노모빌을 타고 눈 덮인 숲과 얼어붙은 호수를 달릴 차례. 반나절 혹은 종일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낚시를 좋아하는 유콘 사람들처럼 언 호수에 구멍을 뚫고 물고기를 잡는 재미도 특별하다. 각종 장비를 대여해주므로 여기서 얼음낚시 기술만 습득하면 된다. 그리고 스노슈잉을 하며 평화롭고 짜릿하게 설경을 탐험한다. 스노슈즈 한 켤레를 빌려 홀로 고독을 즐기거나 가이드와 함께 추억을 쌓아본다.

4일차
야생 그리고 온천

며칠 동안 부지런히 여행하느라 쌓인 피로는 유콘의 유일한 온천인 이클립스 노르딕 핫 스프링스Eclipse Nordic Hot Springs에서 풀면 된다. 야생동물을 만나고 싶다면 13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는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Yukon Wildlife Preserve 투어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2월, 유콘의 개척자 정신을 기리는 유콘 랑데부 페스티벌Yukon Rendezvous Festival에서는 냉동 칠면조 볼링 등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travelyukon.com
4일간의 여정

© Jonathan Tucker

야생동물과의 조우

조금 떨어져서 바라만 보아도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 CoPilot Collective, courtesy of Travel Manitoba

9

고래야 안녕!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고래 출몰이 여름날의 흔한 일상이라는 캐나다. 여름이면 고래 관찰 성공 확률이 99%에 이른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마니토바 주, 퀘벡 주 등지에서 고래 관찰 투어를 할 수 있으며 보통 2~3시간 진행된다. 고래가 10m 이상 솟구치는 분수를 만들거나 물살을 가르며 뛰어오르는 모습을 눈앞에서 마주한다면 그 경이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Travel Manitob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토피노

북태평양을 마주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대표적인 고래 관찰 명소는 밴쿠버섬이다. 그중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하는 토피노에서는 2월부터 범고래를 만날 수 있어 캐나다의 어느 곳보다도 긴 고래 관찰 시즌을 자랑한다. 투어 보트는 범고래와 400m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 토피노 고래 관찰 투어 예약 oceanoutfitters.bc.ca

마니토바 주, 처칠

귀여운 외모와 친근한 성격으로 인기가 높은 벨루가는 우리말로 흰고래라고 부른다. 캐나다 선주민은 이 흰고래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 여름이면 약 6만 마리의 흰고래가 허드슨만에 모여들고 그중 4000마리 정도가 처칠강으로 들어온다. 카약을 즐기며 흰고래 떼가 미소 지을 때 같이 웃어주거나 스노클링에 도전해 흰고래와 함께 유영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 처칠 고래 관찰 투어 예약 seanorthtours.com

퀘벡 주, 웨일 루트

퀘벡 주에는 세인트로렌스강을 따라 북대서양으로 이어지는 880km의 웨일루트가 있다. 전 여정을 따라간다면 10일 정도 걸리는 코스로 흰고래나 혹등고래 등 13종의 고래를 만날 수 있다. 퀘벡 주의 고래 관찰 시즌은 5~10월로 8~9월에 고래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한다. 웨일루트 중 단 한 곳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퀘벡 시티에서 차로 약 3시간 걸리는 작은 해안 마을 타두삭Tadoussac을 추천한다. 타두삭만은 북극해를 회유하는 흰고래가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1년 내내 녀석들이 나타난다. 운이 좋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로 알려진 대왕고래도 볼 수 있다. 투어를 떠나기 전, 고래의 세계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탐험할 수 있는 해양포유류해설센터Marine Mammals Interpretation Center에서 고래에 대한 이해를 깊고 넓게 확장해보자. 이곳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면 수익금은 고래보호기금으로 사용된다.

ⓘ 웨일루트 bonjourquebec.com/en-ca/where-to-go/routes-and-itineraries/whale-route
타두삭 고래 관찰 투어 예약 croisieresaml.com, tadoussacautrement.com

© Destination BC/@jesajaclass

© Ian McAllister/Pacific Wild

10

희귀한 곰이 사는 세계적인 온대우림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여름 가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 Great Bear Rainforest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안 온대 우림 지대로 백색의 커모드곰Kermode bear을 마주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곳이다. 흑곰의 아종인 커모드곰 중 일부는 선천적으로 흰 털을 지닌다. 그래서 '영혼의 곰spirit bear'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해안 피오르 마을 클렘투Klemtu에서 출발해 커모드 곰이 서식하는 프린세스 로열 아일랜드Princess Royal Island로 향하는 현지 가이드 투어를 이용할 수 있다.

Tip

여행 시기 곰 관찰 시즌은 6~10월이나 날씨 등을 고려한다면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6~8월이다. 8월 말부터 9월 또는 10월까지, 연어를 사냥하는 커모드곰을 볼 수 있다. 물속의 연어가 검은색보다 흰색 털의 곰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백색의 커모드곰이 더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머물 곳 선주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에코 투어를 운영하는 스피릿 베어 로지Spirit Bear Lodge를 추천한다. 수천 년 동안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를 터전으로 삼아온 선주민 키타수 하이하이스Kitasoo Xai'xais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키타수 하이하이스 전통 지역Kitasoo Xai'xais Traditional Territory 내 야생동물 관찰 구역과 문화 유적지에 독점적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선주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spiritbear.com

© Adam Pisani

11 순록의 대이동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SEASON 봄 겨울

노스웨스트 준주 북극 지대에서 겨울마다 벌어지는 순록의 대이동. 남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3,000마리에 달하는 순록이 뿌연 눈보라를 일으키며 설원을 지나간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모두 가축용이라는 것. 선주민은 오래전부터 순록을 길들여 썰매를 끌게 했다(산타의 썰매 역시 사슴이 아닌 순록이 끈다는 사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1930년대부터 순록 목축이 시작되었다. 순록은 자외선을 볼 수 있어 온통 새하얀 북극의 겨울 풍경 속에서 길을 찾거나 사물을 구별하는 데 유리한 생존 조건을 갖고 있다. 혼자서 순록의 대이동을 탐험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패키지 투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통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예약 가능하다. tundranorthtours.com

12 세계 북극곰의 수도 **처칠**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가을

북극해와 연결된 허드슨만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마니토바 주 처칠. 인구 900명 남짓한 작은 도시지만 '세계 북극곰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 처칠 인근의 허드슨만에 사는 900~1000마리의 북극곰은 지구상에서 그들의 서식지 중 가장 남쪽에 사는 개체군이다. 덕분에 인간의 거주 지역과 북극곰 서식지가 맞닿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극곰의 습성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녀석들을 마주할 수 있다.

차량 투어
북극곰을 가장 가까이서 안전하게 관찰하는 방법은 툰드라 버기Tundra Buggy라고 불리는 특수 차량에 탑승해 설원을 이동하는 것. 30~40명을 수용하는 툰드라 버기에서 큰 창문을 통해 북극곰을 관찰하거나 차량과 이어진 야외 데크로 나가 북극곰의 사진을 근접 촬영할 수 있다. 대부분의 툰드라 버기 투어는 온종일 진행되며 점심식사도 제공한다. 기차처럼 연결된 툰드라 버기의 경우 숙박시설을 겸하며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툰드라 버기 투어 예약
greatwhitebeartours.com,
lazybearlodge.com

도보 투어
처칠은 도보 투어로 북극곰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처칠에서 짧은 비행으로 도착할 수 있는 야생 로지는 대부분 북극곰의 이동 경로에 자리한다. 덕분에 멀리 나가지 않고, 안전 울타리로 에워싸인 로지 안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북극곰을 만날 수 있다. 혹은 숙련된 가이드와 함께 곰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으로 도보 투어에 나서도 좋다. 야생 로지 세 군데를 운영하는 처칠 와일드Churchill Wild는 북극권 야생동물 관찰 투어 외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야생 로지&워킹 사파리 투어 예약
churchillwild.com

Tip

여행 시기 가을은 북극곰을 볼 수 있는 황금기이다. 캐나다 중부에 자리한 허드슨만은 7월부터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북극곰이 처칠 타운 인근 해안가에 모여든다. 다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10~11월이 이들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 먹이를 사냥하며 설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북극곰을 만날 수 있다.

환경 생각 마니토바 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북극곰 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체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극곰 관찰 투어 역시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된다. 그런 만큼 여행자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 Travel Manitoba

미식 풍경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는 요리에도 그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 Destination BC/Hubert Kang

13 풍부한 테루아 **와이너리**

THEME ● 여정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캐나다 와인의 역사는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늘한 기후와 호수, 석회암 토양 등은 포도 재배의 최적의 조건. 캐나다의 자연을 봉인한 와인을 머금으며 여정의 희열은 더욱 깊어진다.

포도밭을 따라가는 로드트립, 루트97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포도 재배지로 유명한 오카나간 계곡을 따라 약 255km 이어지는 로드트립 코스. 도중에 여러 호수와 강을 따라 하이킹하거나 전기자전거를 빌려 달려본다. 암벽을 등반하거나 탐조를 해보고, 보트를 타거나 수영을 즐길 수도 있다. 루트의 마지막 목적지인 오소유스Osoyoos에는 캐나다에서 유일한 사막이 존재한다. 어떤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더라도 와이너리에서의 시음 또는 미식이 빠질 수 없다.

hellobc.com/road-trips/okanagan-corridor
3~7일간의 여정

온타리오 주의 와인 컨트리 5
캐나다 와인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온타리오 주의 와인 생산지는 5개 지역으로 나뉜다. 목가적인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에는 21개의 와이너리가 있으며, 무료 앱인 피이시 와인 익스플로러PEC Wine Explorer를 다운로드하면 셀프가이드 투어도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지역인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Niagara-on-the-Lake. 38개의 와이너리가 있으며 1월에는 나이아가라 아이스와인 축제가 열린다. 이외에도 소규모 부티크 와이너리가 유명한 나이아가라 절벽 지역, 신흥 와이너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머징 지역Emerging Region, 캐나다 최남단 레이크 에리 노스 쇼어Lake Erie North Shore에서 저마다 독특한 와인을 음미할 수 있다.

winecountryontario.ca/destinations

© Destination BC/Unoaked Photography

© Destination Ontario

© Ryan Lee

© Tourism PEI / Sander Meurs

14

음식의 섬,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THEME ● 여정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i 5일간의 여정

동부 끝에 자리한 섬이자 캐나다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섬을 가로지르며 5일 동안 이곳의 풍성한 음식을 맛본다. 주도 샬럿타운Charlottetown을 둘러보는 **1일차**에는 카우스 크리머리COWS Creamery에서 캐나다 최고의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본다. 피이아이 브루잉 컴퍼니PEI Brewing Co.에서는 블루베리 에일과 랍스터 세종Saison 같은 독특한 맥주를 마신다. 랍스터 온 더 와프Lobster on The Wharf에서 섬의 신선한 해산물도 맛볼 수 있다. **2일차**에는 섬 동부의 포인츠 이스트 코스탈 드라이브EPoints East Coastal Drive를 따라간다. 마룬 피그 아트 갤러리 앤 스위트 숍Maroon Pig Art Gallery & Sweet Shop에서 수제 컵케이크를 맛보고, 미리어드 뷰 아티즌 증류소Myriad View Artisan Distillery에서 증류기를 통해 갓 나온 스트레이트 샤인Strait Shine을 시음한다. 몬터규강Montague River의 멋진 전망이 바라다보이는 윈도스 온 더 워터Windows on the Water에서는 싱싱한 랍스터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시푸드 차우더 등의 만찬을 즐긴다. **3일차**는 그린 게이블스 쇼어Green Gables Shore로 향한다. 더 듄스 카페 앤 스튜디오 갤러리The Dunes Café & Studio Gallery에 방문해 듄스의 수제 도자기에 아름답게 담겨 나오는 각종 요리를 음미한다. 우아하면서도 소박한 더 밀 인 뉴 글래스고The Mill in New Glasgow는 지역 재료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가미한 요리를 낸다. **4일차**는 레드샌즈쇼어Red Sands Shore 지역이다. 랜드마크 오이스터 하우스Landmark Oyster House에서 다섯 종류의 굴을 음미하고, 현지인의 집 같은 오시어스 펍 앤 이터리O'Shea's Pub & Eatery에서 가정식을 먹으며 사교적 대화를 나눈다. **5일차**의 목적지는 노스 케이프 코스탈North Cape Coastal.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센터 엑스포 페스티벌Centre Expo Festival이 열릴 때만 운영하는 레스토바 라트라페Resto-Bar La Trappe에서 한정적으로 선보이는 현지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밀 리버 리조트Mill River Resort에 자리한 캘러헌스 레스토랑 앤 바Callaghan's Restaurant & Bar는 섬의 신선한 해산물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 Tourism PEI / Stephen Harris

15

랍스터에 대한 모든 것 **쉐디악 베이 크루즈**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여름

i shediacbaycruises.ca
약 2시간 30분의 여정

랍스터 최대 수출국인 캐나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 가히 랍스터의 고장! 쉐디악 베이 크루즈Shediac Bay Cruises에서 운영하는 랍스터테일스LobsterTales 투어는 뉴브런스윅 주 쉐디악 베이의 바다를 항해한다. 크루즈에서 갓 요리한 맛있는 랍스터가 미뢰를 자극하는 어부의 만찬을 즐기며 캐나다 동부 해안의 풍경을 감상한다. 투어 가이드는 랍스터 요리를 먹는 요령뿐 아니라 랍스터 낚시 이야기를 여행자들과 대화로 풀어나간다. 식사 후에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전통 아카디아(프랑스 지배를 받은 캐나다 동부 해안 지역) 음악을 듣는다. 6월부터 9월까지 운영.

© Hemmings House

© Hemmings House

© Destination Vancouver/Nelson Mouellic

© Destination Vancouver/Vision Event Photography Inc.

© Destination Vancouver/Fairmont Pacific Rim

16

밴쿠버 맛보기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i destinationvancouver.com
4일간의 여정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3일 동안 풍성한 미식을 경험한다.

1일차

그레이 라인 웨스트코스트 투어Gray Line Westcoast Sightseeing tour로 하루를 시작한다. 버스를 타고 밴쿠버의 명소를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그랜빌 아일랜드 퍼블릭 마켓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시장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구입해 다운타운이 보이는 환상적인 풍경 속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다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가 벨라 젤라테리아Bella Gelateria에서 젤라토를 즐긴다. 그러고 나서 밴쿠버 브루어리 투어Vancouver Brewery Tour를 통해 이 도시만의 맥주를 경험해본다. 유서 깊은 워터프런트역Waterfront Station 인근에서 프라이빗 버스에 올라타면 밴쿠버 곳곳의 유명 브루어리에 도착해 최고의 에일, 사워 비어, 세종 등을 시음할 수 있다. 저녁식사는 명성이 자자한 혹스워스 레스토랑Hawksworth Restaurant에서 우아하게 즐겨보자. 셰프 데이비드 혹스워스David Hawksworth가 캐나다 서부 해안의 재료와 프랑스 고유의 조리법을 바탕으로 근사한 요리를 선보인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와인을 곁들이면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는다.

2일차

밴쿠버에서 인기 있는 브런치 맛집 카페 메디나Café Medina에서 한 끼를 든든히 먹고 싶다면 중동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아침식사용 타진(수분을 가둬 요리하는 토기 냄비에 고깔 모양의 뚜껑을 덮어 찌는 모로코 전통 음식)을, 좀 더 가벼운 식사를 원한다면 와플과 라벤더 카페라테를 선택한다. 밴쿠버 아트 갤러리Vancouver Art Gallery를 돌아본 후 밴쿠버 푸디 투어스Vancouver Foodie Tours의 개스타운 미식 투어Gastronomic Gastown tour에 나선다. 3시간 동안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역사적인 지역을 탐험하며 현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네 곳에 들러 정통 캐나다 음식을 다채롭게 맛볼 수 있다. 밤이 되면 밴쿠버의 생동감 넘치는 다이닝 신을 경험할 수 있는 페어몬트 퍼시픽 림 호텔Fairmont Pacific Rim Hotel의 더 보타니스트The Botanist로 향한다. 지역 농산물과 지속 가능한 해산물을 활용하는 셰프 헥토르 라구나Hector Laguna의 요리는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3일차

밴쿠버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음식도 마찬가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차이나타운에서 다채로운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어 웍 어라운드 차이나타운 투어A Wok Around Chinatown tour에서는 점심식사로 전통 딤섬이 등장한다. 이후 소화도 시킬 겸 도심을 떠나 자연으로 향한다. 인근의 캐나다 플레이스Canada Place에서 노스 쇼어North Shore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에 몸을 싣는다. 그라우스산Grouse Mountain 아래서 내린 다음 곤돌라에 탑승해 해발 1231m의 정상에 오른다. 환상적인 석양을 볼 무렵까지 산에 남아 있다가 정상에 자리한 더 옵저버터리The Observatory에서 저녁을 보낸다(이곳에서 식사를 예약하면 그라우스산 입장권과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무료로 제공한다). 최고의 제철 식재료만을 사용해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의 독특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인상적인 미식 경험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바라보이는 밴쿠버의 반짝이는 야경 역시 와인 못지않은 훌륭한 페어링이다!

Tip

축제 향연 캐나다 최대 규모의 음식 축제 '다인 아웃 밴쿠버Dine Out Vancouver'에 맞춰 미식 여행 일정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17일간 열린다. '밴쿠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은 2월에 개최된다. 6월에는 10일 동안 '밴쿠버 수제 맥주 위크Vancouver Craft Beer Week'가 이어진다.

안녕하세우 밴쿠버는 새우가 유명하지만 철이 매우 짧아 5월에 30일 정도만 맛볼 수 있다.

바다 사랑 레스토랑에서 해산물 관련 메뉴를 주문한다면 '오션 와이즈Ocean Wise®' 로고를 확인하도록.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잡거나 양식한 해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 Destination Vancouver/Hawksworth Restaurant

17

베스트 **브루어리 & 펍 10**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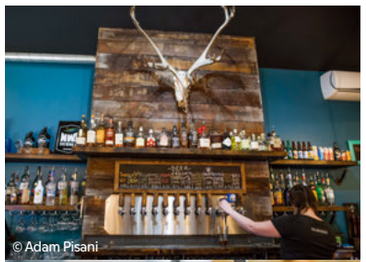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캐나다 곳곳의 수제 맥주를 마셔볼 시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의 33 에이커스 브루잉 컴퍼니33 Acres Brewing Company는 자몽과 소나무 향미가 돋보이는 오션 아이피에이Ocean IPA로 태평양 북서부의 독특한 맛을 구현한다. 노바스코샤 주 할리팩스Halifax의 스터번 고트 개스트로펍Stubborn Goat Gastropub에서는 항구의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보며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켤 수 있다. 유콘 준주의 유콘 브루잉Yukon Brewing은 낮부터 오로라를 고대하며 목마른 여행자에게 칠쿠트 라거Chilkoot Lager 같은 시그니처 맥주를 안내한다. 뉴브런스윅 주 프레더릭턴Fredericton에서 25년 이상 영국식 에일을 양조해 온 피카룬스 브루잉 컴퍼니Picaroons Brewing Company는 유기농 맥주인 도어야드 서머 위트 에일뿐 아니라 달콤한 메이플 크림 에일 등을 선보인다. 알버타 주의 캘거리 로컬들은 라스트 베스트 브루잉 앤 디스틸링Last Best Brewing & Distilling의 쇼 포니 페일 에일Show Pony Pale Ale과 더티 버드 블랙 라거Dirty Bird Black Lager를 좋아한다. 퀘벡 주 몬트리올 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베네룩스 브라세리 아르티자날레BENELUX Brasserie Artisanale는 전통적인 벨기에 맥주부터 인디아 페일 에일까지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 세인트존스St. John's의 퀴디비디 브루어리Quidi Vidi Brewery에서는 뉴펀들랜드섬과 래브라도 해안에 떠다니는 빙산으로 만든 아이스버그 맥주를 놓칠 수 없다. 노스웨스트 준주 옐로나이프의 엔더블유티 브루잉 컴퍼니NWT Brewing Company 대표 맥주는 킥슬레드 크림 에일Kicksled Cream Ale이다. 누나부트 준주 이칼루이트Iqaluit의 누나부트 브루잉 컴퍼니Nunavut Brewing Company는 캐나다 최북단에 자리한 양조장으로 인접한 실비아그리넬 준주공원Sylvia Grinnell Territorial Park의 깨끗한 물과 발효 중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공정을 활용한다. 아이리시 레드 에일인 오팍투크Aupaqtuq는 이누이트의 언어로 빨강을 뜻한다.

© Destination Canada

© New Brunswick Tourism


© Adam Pisani

© Hemmings House

© Travel_Alberta

© Park_Distillery

© Travel_Alberta

© Travel_Alberta

18

위대한 **캐나다 위스키**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캐나다는 세계 4대 위스키 제조국 중 하나이다. 캐나다 위스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곡물에서 증류한 알코올을 사용해야 하며, 둘째로 최소 3년 동안 작은 나무통에서 숙성을 거친 후, 셋째로 병입 시 최종 알코올 함량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덥고 건조한 알버타 주의 여름은 독특한 풍미를 지닌 보리 알갱이가 잘 여문다. 캐나다 최고의 보리 생산지로 꼽히는 이곳의 위스키 증류소를 안내한다.

역사와 유산으로 깊이를 더하다, 오 클레어 디스틸러리

로키산맥 기슭의 작은 마을 터너 밸리Turner Valley에 위치한 오 클레어 디스틸러리Eau Claire Distillery는 알버타산 보리와 향신료만을 사용해 주류를 제조한다. 전 세계 증류소 중에서 유일하게 말을 이용하는 농법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테루아와 전통적인 농법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농사지은 소량의 곡물은 한정판 위스키 생산에만 이용된다. '금지 경험Prohibition Experience'이라는 흥미로운 투어는 1920년대 금주령 시기에 불법 위스키 거래의 중심지였던 터너 밸리의 역사와 풍광, 소리와 맛 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어 끝에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증류주와 칵테일 시음이 기다린다.

i **eauclairedistillery.ca**
'금지 경험' 투어는 30캐나다달러,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시작, 약 45분~1시간 소요.

로키산맥 빙하수가 위스키로 탄생하다, 파크 디스틸러리

알버타 주 밴프 타운에 자리한 파크 디스틸러리Park Distillery는 캐나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유일한 증류소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물은 로키산맥의 6개 빙하에서 흘러 내려온 것으로, 석회암 퇴적물을 통과하면서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곡물 역시 알버타 고지대에 자리한 농장에서 생산한 것이다. 재료의 순도를 보존하기 위해 제분하고, 으깨고, 증류하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므로 소량 생산만 가능하다. 무료 양조장 투어와 시음이 포함된 유료 투어가 있으며, 시음 시 가장 인기 있는 6가지 증류주의 ½온스 샘플을 제공한다. 특히 100% 알버타 호밀로 만든 위스키에 퀘벡산 메이플 시럽을 첨가한 파크 메이플 라이Park Maple Rye가 호평을 얻고 있다.

i **parkdistillery.com**
양조장 투어는 무료이나 시음 포함 시 1인당 22캐나다달러, 매일 오후 3시 30분 시작.

북미에서 가장 작지만 에드먼튼에서 가장 오래되다, 스트래스코나 스피리츠

알버타 주의 에드먼튼Edmonton은 축제와 문화의 수도로 불린다. 스트래스코나 스피리츠 Strathcona Spirits는 에드먼튼 최초이자 북미에서 가장 작은 양조장이다. 이 도시는 매년 에드먼튼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며 자유로운 예술과 문화의 분위기가 가득하다. 그 정수를 고스란히 증류한 이 디스틸러리 역시 개성 넘치는 주류와 굿즈로 사랑받고 있다. 양조장 규모가 작아 생산하는 물량이 많진 않지만, 병 디자인이 세련된 압생트, 호밀 위스키, 몰트 스피릿, 보드카, 진 등을 모두 알버타에서 생산한 재료로만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다. 증류 및 숙성 과정을 알려주는 투어 후에는 고유한 스피리츠spirits를 충분히 시음 가능하다.

i **strathconaspirits.ca**
시음이 포함된 양조장 투어 15캐나다달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시작, 45분 소요.

19 메이플 시럽에 진심을 다하다 퀘벡 주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캐나다 선주민들이 단풍나무 수액을 천연 감미료로 사용하면서 메이플 시럽의 오랜 역사가 시작된다. 메이플 시럽 농장인 슈거 쉑Sugar Shack은 메이플 태피를 포함한 전통 식사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대부분 3~4월에 운영된다. 퀘벡 사람들에게 슈거 쉑 나들이는 봄을 맞이하는 중요한 절기 의식. 식사 후 하이킹, 단풍나무 숲에서 마차 타기 등 농장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퀘벡 주 전 지역에 110개가 넘는 슈거 쉑이 자리하는데, 주로 퀘벡 시티 외곽과 몬트리올 외곽에 많은 편이다. 슈거 쉑 시즌은 길지 않으나 1년 내내 식사와 체험을 제공하는 곳을 안내한다.

© Guy Kinkead, Claude Parent

© Destination Canada

수크레 드 라 몽타뉴
Sucrerie de la Montagne
퀘벡 주의 리고Rigaud 지역에 있는 유명한 농장으로 '퀘벡 헤리티지 사이트'로 지정된 곳이다. 전통 방식 그대로 메이플 수액을 수작업하며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식당과 빵집, 댄스홀, 기념품 상점까지 갖추어 작은 마을에 방문한 느낌이다. 식사는 무제한 뷔페를 제공하는데 미트 파이와 완두콩 수프 등 푸짐하고 담백한 퀘벡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다.

sucreriedelamontagne.com/en/sugar

에라블리에르 뒤 락 뷰포트
Érablière du Lac Beauport
로렌시아산맥Laurentian Mountains 한가운데 자리한 슈거 쉑. 박물관도 운영해 선주민이 단풍나무 수액을 발견한 때부터 오늘날 사용되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메이플 시럽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퀘벡 전통 음악을 들으며 전통 식사를 즐기는 것.

erablierelacbeauport.com

© Mathieu Dupuis

20 이틀 간의 미식 여행 퀘벡 시티

THEME ● 여정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1일차
카시스 몬나 에피 Cassis Monna & filles에서 블랙커런트로 만든 다양한 증류주를 시음해본다. 뒤 카피텐 페르메 앤 비네그러리Du Capitaine Ferme & Vinaigrerie에서는 농장 투어를 통해 유기농으로 재배한 블랙커런트로 식초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고 테이스팅 한다. 물론 이곳의 블랜커런트 젤라토도 놓칠 수 없다. 르 콩테 드 루시Le Comte De Roussy는 퀘벡 시티의 과수원에서 보기 드문 배를 포함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한다. 수확철에는 직접 과일과 채소를 따기 위해 들판으로 모험을 떠날 수도 있다. 오리를 방목해 키우는 농장 레 카나르이즈Les Canardises에서는 군침이 도는 오리 무스와 푸아그라, 카술레 등을 맛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거위를 기르고 푸아그라 요리를 선보이는 라 페르메 퀘벡와La Ferme Québec-Oies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곳의 파테, 테린, 리예트 등도 훌륭하다.

2일차
유기농 치즈를 만드는 프로마주리 데 그랑디네스Fromagerie des Grondines의 가이드 투어를 통해 마구간, 착유실, 생산실, 저장고 등을 둘러보고 치즈를 시식한다. 1840년에 지어진 건축 유산에 자리한 라 디네트 뒤 카이프La Dinette du Cap에서는 유기농 커피를 음미한다. 명성이 자자한 줄리 바숑 쇼콜라Julie Vachon Chocolats에서 장인이 만든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등을 맛보는 것도 놓칠 수 없다. 1667년에 설립되어 12대째 이어온 페르메 랑글루아 셰 메데Ferme Langlois Chez Médé에서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농장을 둘러본다. 8월에 방문한다면 뇌빌Neuville 단옥수수를 꼭 먹어봐야 한다. 마이크로브라세리 라 수쉬 Microbrasserie La Souche는 지역의 문화를 맥주 이름에 담아 양조하며, 애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대부분의 요리에 맥주를 활용한다.

quebec-cite.com
2일간의 여정

© quebecregiongourmande.com, Destination Québec cite

© Francis Fontaine, Destination Québec cite

© quebecregiongourmande.com, Destination Québec cite

© Gaëlle Leroyer

© Leila Kwok

21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밴쿠버 & 토론토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2022년 밴쿠버와 토론토에 미쉐린이 상륙했다. 자연에서 온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 다양한 이민족으로 구성된 도시답게 풍성한 세계 각국의 요리. 이러한 두 가지 장점이 극대화된 캐나다의 파인 다이닝을 음미하는 시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유일하게 두 개의 별을 받은 토론토의 스시 마사키 사이토를 따로 간단히 소개한다. 로비의 대리석 계단, 200년 된 편백나무로 만든 카운터, 일본 전통 목공예품 등으로 장식된 이곳에서 사이토 마사키 셰프의 오마카세가 모험처럼 펼쳐진다. 하얀 트뤼플 눈보라가 쌓여 살살 녹는 추토로chutoro(참다랑어의 등과 배 부근 살로, 꽤 비싸고 특별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부위)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별미다.

©Jonathan_Adediji

©Jonathan_Adediji

MICHELIN LIST

밴쿠버
★ AnnaLena (컨템퍼러리)
★ Barbara (컨템퍼러리)
★ Burdock & Co (컨템퍼러리)
★ iDen & QuanJuDe Beijing Duck House (중식)
★ Kissa Tanto (일식)
★ Masayoshi (일식)
★ Published on Main (컨템퍼러리)
★ St. Lawrence (프렌치)

토론토
★★ Sushi Masaki Saito (일식)
★ Aburi Hana (일식)
★ Alo (컨템퍼러리)
★ Alobar Yorkville (프렌치)
★ Don Alfonso 1890 (이탤리언)
★ Edulis (지중해식)
★ Enigma Yorkville (컨템퍼러리)
★ Frilu (컨템퍼러리)
★ Kaiseki Yu-zen Hashimoto (일식)
★ Osteria Giulia (이탤리언)
★ Queztal (멕시칸)
★ Shoushin (일식)
★ Yukashi (일식)

풍요로운 문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캐나다의 다채로움.

© Jean-François Frenette

22 역사적인 요새도시 올드 퀘벡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올드 퀘벡은 온전한 요새도시로 프랑스 통치 시절의 건축물을 400년 이상 보존하고 있다. 퀘벡 시티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 탐험에 나선다.

1일차 1608년 퀘벡 시티를 세운 곳인 프티-샹플랭Petit-Champlain의 로열 광장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뒤프랭 테라스Dufferin Terrace의 생루이 포트 앤 샤토Saint-Louis Forts and Châteaux에서는 북미 유일의 지하 고고학 유적지를 약 45분간의 가이드 투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647년 지어진 노트르담 드 퀘벡 대성당 바실리카Notre-Dame de Québec Cathedral Basilica는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캐나다 국립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에 감옥이었던 모린 센터Morrin Centre는 현재 퀘벡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변모했다. 이머전 퀘벡은 도시 역사의 중추적 사건을 재현하는 가상현실이다.

2일차 북미에서 가장 큰 영국식 요새인 시타델 드 퀘벡Citadelle de Québec을 둘러보며 근위병 교대식을 구경한다. 뮤제 데 플레느Musée des plaines에서는 과거 프랑스와 영국이 전투를 벌였던 아브라함 평원Plains of Abraham의 신선한 공기를 쐬고, 박물관에서 당시 전쟁을 상상해본다. 퀘벡 국립 사적지의 요새에서는 90분 동안 가이드 투어를 통해 올드 시티를 둘러싼 거대한 성벽을 살펴보고 평소 접근할 수 없었던 숨겨진 장소에 들어가본다.

3일차 매혹적인 오를레앙섬Île d'Orléans을 돌아볼 시간. 섬 전체를 둘러볼 여유가 없다면 퀘벡 시티와 몽모랑시 폭포의 전망이 펼쳐지는 생트 페트누이Sainte-Pétronille 주변 지역만 살펴봐도 좋다. 웬데이크Wendake에서 웬다트Wendat 선주민의 전통을 경험하고, 야생 사냥감과 물고기로 웬다트 음식을 요리하는 라 트레La Traite에서 식사하며 여정을 마친다.

i 3일간의 여정

24 캐나다의 겨울 축제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겨울

© Raphael Ouellet

북극곰 수영 대회Polar Bear Swim
1월 1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밴쿠버 잉글리시 베이English Bay의 차가운 바다를 수영하며 새해를 기념한다. 1920년부터 밴쿠버의 전통. 누구나 사전 등록 후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를 위한 따뜻한 오두막 시설이 제공된다. 공연과 푸드트럭 등 축제의 열기는 마냥 뜨겁다. vancouver.ca/parks-recreation-culture/polar-bear-swim.aspx

© Francis Gagnon

퀘벡 윈터 카니발
Quebec Winter Carnival
1955년부터 한결같이 겨울의 마법을 부려온 퀘벡 윈터 카니발. 축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본옴Bonhomme은 퀘벡 전통 복장을 한 거대한 눈사람이다. 이 본옴의 얼음 궁전은 축제의 주요 무대. 눈 목욕, 흥겨운 야간 퍼레이드, 얼음으로 뒤덮인 세인트로렌스강을 질주하는 아이스 카누 레이싱 등 흥미진진한 축제의 향연이 펼쳐진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carnaval.qc.ca

스노킹 페스티벌
SnowKing Festival
아이들을 위해 소박하게 지은 얼음 성이 지역의 명물이 되면서 캐나다 전역에 알려진 축제. 옐로나이프만에 접한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 위에 세워진 얼음 성 안에 이색적인 카페를 비롯해 연극과 코미디쇼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눈 조각 심포지엄에서는 전 세계의 아티스트가 모여 눈으로 근사한 작품을 창작한다. 매년 3월 개최. snowking.ca

몬트리올 뤼미에르
Montréal En Lumière
문화와 예술로 빛이 나는 몬트리올. 도심 한가운데 생기는 300m 길이의 스케이트 루프에서 화려한 음악과 조명을 누리며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 또 다른 아이스링크는 밤이 되면 무대로 변신해 무료 아이스쇼가 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몬트리올 전역의 박물관과 갤러리, 극장 등 50곳이 넘는 장소가 밤늦게까지 무료로 개장해 잠 못 이루는 도시가 되는 날이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montrealenlumiere.com

오타와 윈터루드
Ottawa Winterlude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뿐 아니라 강 건너 가티노Gatineau 지역까지 축제가 열린다. 도시 중심을 지나는 리도 운하Rideau Canal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변모한다. 여기서 1200명이 참가해 바닥에 스케이트 날을 부착한 드래곤 보트를 타고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경주를 벌인다. 하키 대회뿐 아니라 철인3종 경기 등도 개최된다. 공연, 놀이, 전시, 스포츠, 퍼레이드 등 약 480개의 이벤트 대부분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매년 2월 3주 동안 진행. canada.ca/en/canadian-heritage/campaigns/winterlud

23 "풍경 덕분에 황홀해졌어요" 빨간 머리 앤의 그곳

THEME ● 여정

SEASON 봄 여름 가을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Lucy Maud Montgomery가 소설 〈빨간 머리 앤〉을 쓰는 데 영감을 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져보는 시간.

© Tourism PEI / John Sylvester

© Tourism PEI / John Sylvester

i 몽고메리에게 영감을 준 모든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mmontgomeryliterarytour.com

캐번디시Cavendish의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국립공원에 자리한 그린 게이블스 헤리티지 플레이스Green Gables Heritage Place는 〈빨간 머리 앤〉에 등장한 초록 지붕의 집이 있는 곳이다. 앤처럼 19세기 정원과 농장, 산책로를 즐겁게 걸어본다. 몽고메리가 예배한 캐번디시 연합 교회Cavendish United Church에는 그녀가 1903~1911년에 연주한 오르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곳에서 1942년 그녀의 장례식이 열리기도 했다. 캐번디시를 떠나기 전, 빨간 머리 앤 스토어Anne of Green Gables Store에 방문해 기념품으로 다양한 선물과 책을 골라본다. 몽고메리의 친척이자 상점 소유주인 조지 캠벨George Campbell이 서명한 책을 소장할 수도 있다. 뉴 런던에는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몽고메리의 생가가 자리한다. 파크 코너에는 몽고메리의 삶과 작품을 기리는 빨간 머리 앤 박물관이 있으며, 이곳에서 매튜의 마차Matthew's Carriage Ride를 타고 박물관 부지 주변과 호수를 따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샬럿타운에서는 빨간 머리 앤 초콜릿Anne of Green Gables Chocolates에 방문해 소설 속에 등장한 라즈베리 코디얼을 상쾌하게 맛보자.

© Tourism Saskatchewan/Greg Huszar Photography

© Tourism Saskatchewan/Hans-Gerhard Pfaff

25 평화에 기여하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캐나다의 여러 행사에서 붉은 제복을 입고 퍼레이드하는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RCMP)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캐나다 연방 경찰로 현지인들은 마운티Mountie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매년 5~10월 캐나다 전역의 50개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기부금 모금 행사인 RCMP 뮤지컬 라이드는 32명의 기마경찰이 음악에 맞추어 다양한 대형을 선보인다. RCMP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경주, 바비큐 등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린다. 새로운 기마경찰을 훈련시키는 아카데미와 RCMP 헤리티지 센터가 위치한 사스카츄완 주 리자이나Regina에서는 150년의 역사를 다루는 전시와 퍼레이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6

노바스코샤 주의 그림 같은 두 마을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서양을 마주한 페기스 코브Peggy's Cove 등대는 캐나다 기념엽서에 빠지지 않는 곳이다. 화강암 바위 위 빨간 지붕의 팔각형 등대와 거친 파도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한다.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루넨버그Lunenberg는 18~19세기에 지어진 알록달록한 건축물이 바다에 반영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낸다. 약 4000km에 달하는 해안 지대를 품고 있는 이곳은 선박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선원이 많았던 만큼 럼주 산업도 발달해 양조장에서 좋은 럼주를 꿀꺽 넘길 수도 있다. 1921년 루넨버그에서 건조한 블루노스Bleunose는 17년 동안 무패 행진을 계속하며 1930년대 캐나다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경주용 배로, 그 명성을 이은 블루노스 II는 투어 크루즈로 운행 중이다.

© Tourism Nova Scotia / Photographer: Acorn Art & Photography

© Fairmont Empress

캐나다 커뮤니티 속으로

커뮤니티에 깊이 들어가 현지인의 삶에 녹아든다.

© Calgary Stampede

27

살아 숨 쉬는 카우보이 문화 캘거리 스탬피드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SEASON 여름

대규모 농장에서 시작된 카우보이 문화가 짙게 남아 있는 알버타 주. 그 정수를 보여주는 세계 최대의 로데오 축제 캘거리 스탬피드Calgary Stampede를 놓칠 수 없다. 매년 7월 선주민과 지역의 예술인 등이 캘거리 전역을 퍼레이드로 수놓으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맹렬하고 열광적인 로데오 경기뿐 아니라 마지막을 장식하는 화려한 이브닝 쇼까지, 북미 서부의 개척 정신이 녹아 있는 유산을 보존하고 그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카우보이 복장을 갖추거나 소품을 챙기는 것도 축제를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재미있는 전통 중 하나는 축제 기간 곳곳에서 무료 아침식사로 팬케이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calgarystampede.com

28

영화 속 그곳

THEME ● 여정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산, 도시, 사막, 해변, 열대우림 등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다양한 지형은 영화의 무대가 된다. 밴쿠버의 개스타운, 벤톨 센터Bentall Centre, 페어몬트 호텔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서 촬영한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조지아 스트리트 고가교에서 벌어진 〈데드풀〉의 스턴트 시퀀스 등은 도시의 면면을 특별하게 보여준다. 리치먼드의 스티브스턴Steveston은 ABC 드라마 〈원스 어폰 어 타임〉에서 미국 메인 주에 있는 가상의 해안 도시로 등장한다. 사막이 펼쳐지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인테리어의 캐시 크릭Cache Creek은 〈박물관이 살아있다〉에서 이집트로 나온다. 쿠트니 로키Kootenay Rockies 역시 영화적 이목을 즐긴다. 넬슨Nelson의 유서 깊은 건축물이 영화 〈록산느〉의 배경을 이루는 것처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북부는 빙하 등의 외진 풍광 덕분에 알래스카의 이상적인 대안이 되었고, 스미더스Smithers와 허드슨베이산Hudson Bay Mountain이 비행기 추락을 다룬 리암 니슨 주연의 액션영화 〈더 그레이〉에 출연한다.

© Tourism Richmond

© Northern BC Tourism/ Mattias Fredriksson

© Destination Toronto

29

영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토론토국제영화제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가을

온타리오 주 토론토는 매년 9월 단 11일 동안 도시 전체가 영화 스크린으로 환하게 빛난다. 60여 개국에서 온 300편 이상의 영화를 매일 밤 레드카펫 갈라와 함께 상영하기 때문이다. 세계 4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토론토국제영화제 이야기다. 비영리문화단체에서 운영하는 영화제는 시민들의 기부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TIFF 벨 라이트박스TIFF Bell Lightbox는 다섯 개의 영화관과 갤러리를 갖춘 영화제의 주요 무대로 학습실과 기념품 가게 등도 자리한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페스티벌 스트리트는 모든 이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거리 축제로 야외 상영과 라이브 공연 등 영화에 관한 모든 것으로 채워진다. tiff.net

30

머무름을 찬양하다 페어몬트 호텔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세계의 랜드마크 호텔을 생각할 때, 페어몬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있는 세 곳의 페어몬트 호텔에 이틀씩 머무는 찬란한 여행을 떠나본다.

블랙콤산Blackcomb Mountain 기슭에 자리한 페어몬트 샤토 휘슬러는 고산의 환경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투숙객이라면 누구나 휘슬러 익스피리언스 가이드 투어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지인의 관점에서 산악을 탐험하고 마을을 둘러보는 등 휘슬러의 진정한 본질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계절에 따라 승마와 하이킹, 스키와 스노슈잉뿐 아니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 양조장 탐방 등 다양한 경험을 선사한다.
fairmont.com/whistler
밴쿠버섬 해안에서 이너 하버를 내려다보는 페어몬트 엠프레스는 빅토리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 국립 사적지로 지정된 건축물은 안팎으로 고전과 현대, 빈티지와 첨단이 매혹적인 조화를 이룬다. 호텔의 윌로 스트림 스파Willow Stream Spa는 빅토리아의 고요한 오아시스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시그니처 웨스트 코스트 트리트먼트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는 그냥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에너지 재생이 우리의 사명인 이유입니다"라는 그들의 말에 공감하면서.
fairmont.com/empress-victoria
밴쿠버 다운타운의 페어몬트 퍼시픽 림은 도심 속 온전한 휴식처다. 호텔 2층의 타센 라이브러리TASCHEN Library는 가장 아름다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평가받는 타센 출판사의 서점. 아티스트 모노그래프부터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과 사인 에디션까지, 275권 이상의 책을 이용하고 품격 있는 기념품도 발견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 자체가 하나의 예술 컬렉션 같은 이곳에 지적인 희열이 흐른다.
fairmont.com/pacific-rim-vancouver

© Destination Vancouver/Destination Canada

© Destination Vancouver/Fairmont Pacific Rim

i 6일간의 여정

31

다이내믹 **몬트리올**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퀘벡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몬트리올은 섬 안에 자리해 다양한 풍경이 공존한다.

1일차 도시가 세워진 바로 그곳, 1000년의 고고학 유적지에 들어선 박물관 포엥트아칼리에Pointe-à-Callière를 둘러보고 폐허 위에 투사된 미디어 쇼를 즐긴다. 박물관 최상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옛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다. 옛 항구에서 도시 서쪽의 락 생루이Lac Saint-Louis까지 라신 운하Canal de Lachine를 따라 자전거 가이드 투어를 떠난다. 운하와 수로의 건축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를 달려볼 수 있다.

2일차 상점이 즐비한 생트카트린 거리Rue Sainte-Catherine를 따라가며 쇼핑에 나선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몬트리올 미술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이다.

3일차 몽로얄 공원Parc du Mont-Royal에서 전망대인 콘디아론크 벨베데르Kondiaronk Belvedere로 이어지는 길을 산책하고 세인트로렌스강이 보이는 도시 풍경을 담는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벽화도 감상한다. 매년 6월 생로랑 거리Boulevard Saint-Laurent는 벽화 축제 기간 동안 창작한 작품으로 야외 박물관이 된다.

4일차 리틀 이탈리아의 장 탈롱 마켓Jean Talon Market 등지에서 미식 가이드 투어에 동참한다. 몬트리올 문화의 중심인 카르티에 데 스펙타클Quartier des spectacles의 80여 개 공연장에서 무용, 연극, 오페라,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이곳에서 약 40개의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5일차 섬인 몬트리올에서 수상스포츠를 빠뜨릴 순 없다. 세인트로렌스강에서 서핑을, 장드라포 공원Parc Jean-Drapeau에서 스탠드업 패들보딩에 도전한다. 이 공원은 야외 수영장뿐 아니라 놀이공원과 박물관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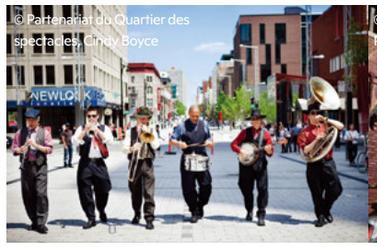
6일차 유서 깊은 올드 몬트리올을 거닐며 건축물을 감상하고 레스토랑과 카페에 방문한다. 밤에는 자크카르티에Jacques-Cartier 다리에 조명이 켜지고 노트르담 바실리카Notre-Dame Basilica에서 아우라 쇼가 펼쳐진다. 설치미술 작품인 〈기억의 도시Cité Mémoire〉는 올드 몬트리올의 건물에 투사되어 도시를 빛으로 물들인다.

© Société du Parc Jean-Drapeau

숫자로 보는 몬트리올 여정

6일 몬트리올을 6일 동안 돌아보더라도 또다시 방문해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을 것이다.

14.6km 지하철을 타면 거의 모든 곳으로 갈 수 있으며 자전거나 보트 역시 이용 가능하다. 중간중간 걷는 것도 좋은 방법.


© Partenariat du Quartier des spectacles, Cindy Boyce

© Jackie Robinson Fluke (ASHOP) - Photo Marie Deschene

© Destination BC, Jordan Dyck

33

빅토리아 음미하기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주도에서 미식의 번영기를 맞닥뜨리다.

2일차

이튿날에는 빅토리아의 전형적인 요리에서 벗어나 팜 투 테이블을 경험해본다. 시 사이더 팜 앤 사이더하우스Sea Cider Farm & Ciderhouse는 영양분이 풍부한 사이티를 선보이는 곳으로 월요일마다 사이티와 요가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루스트 빈야드 비스트로 앤 팜 베이커리Roost Vineyard Bistro & Farm Bakery는 빵을 만드는 밀조차 맷돌로 직접 갈아 사용한다. 피크닉을 즐기고 싶다면 너리시 키친 앤 카페Nourish Kitchen & Cafe에 들러 제철 허브로 요리한 건강식을 사서 근처 공원으로 향하자.

1일차

아침은 간단하게 푸드트럭에서 해결하자. 타코 저스티스Taco Justice에서 방금 만든 아보카도 타코를 주문하거나 라 타케리아La Taqueria의 정통 멕시칸 푸드에 도전해봐도 좋다. 이른 점심은 레드 피시 블루 피시Red Fish Blue Fish에서 내놓는 갓 잡은 해산물 요리를 추천한다. 저녁에는 매그놀리아 호텔 앤 스파 Magnolia Hotel and Spa에 위치한 코트니 룸Courtney Room으로 이동해 껍데기를 벗긴 굴에 수제 칵테일을 곁들이는 건 어떨까.

3일차

더 페달러The Pedaler에 문의해 자전거를 타고 빅토리아 곳곳에 숨은 양조장을 찾아가는 투어에 오른다. 혹은 이너 하버의 산업 지대에 자리 잡은 록 베이Rock Bay에서도 독특한 투어를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자부심이 느껴지는 증류주를 생산해내는 드리프트우드 양조장Driftwood Brewery, 한때 오토바이를 취급했으나 카페로 탈바꿈한 휠리스Wheelies, 달콤한 디저트 가게인 솔적 파이 컴퍼니Saltchuck Pie Company를 한번에 둘러본다.

i hellobc.com
3일간의 여정

32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활기찬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를 단 3일 동안 활달하게 누비려면 운동화 끈을 단단히 동여매야 할 것이다.

1일차 다운타운

밴쿠버 현지인처럼, 더 버즈 앤 더 비츠The Birds & The Beets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캐나다 플레이스의 독특한 흰색 돛을 따라 만남의 장소로 향한다. 대부분의 투어도 이곳에서 시작하고, 길 건너편에는 관광안내소가 자리한다. 스탠리 공원Stanley Park은 야생의 열대우림과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도심 속 휴식처가 되어준다. 차이나타운 북서쪽의 개스타운은 1860년대에 지어진 저층 벽돌 건물이 있는, 밴쿠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 갤러리와 디자이너 부티크 등을 둘러본 후 도시 최고의 햄버거 가게 중 하나인 푸어하우스Pourhouse에서 배를 든든히 채운다.

2일차 웨스트사이드

보쿠 베이커리 앤 카페Beaucoup Bakery & Café와 49번지 패러렐 커피 로스터스49th Parallel Coffee Roasters에서 카페인이 풍부한 도시 밴쿠버를 느껴본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드넓은 캠퍼스에는 밴쿠버 출신의 저명한 건축가 아서 에릭슨이 설계한 인류학 박물관이 자리한다. 점심은 밴쿠버에서 사랑받는 채식 레스토랑 더 남The Naam에서 해결하자. 산업 현장이었던 그랜빌 아일랜드는 활기찬 쇼핑 지구로 거듭난 곳. 여행 기념품이 고민된다면 네트 로프트Net Loft에 들러봐도 좋다. 부두의 선적 컨테이너를 개조한 세련된 레스토랑 포피나 캔틴Popina Canteen은 밴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4인이 합심해 '패스트푸드의 대변신'을 꾀한다.

© Destination Vancouver/Nelson Mouellic

3일차 노스쇼어

약 70m 높이의 흔들다리, 캐필라노 현수교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에서 캐필라노강과 숲을 내려다보는 흥미진진한 모험에 뛰어든다. 노스 밴쿠버 동쪽에 있는 린 헤드워터 지역 공원Lynn Headwaters Regional Park은 황무지 지형으로 쉬운 산책길부터 험준한 오지 트레킹까지 다양한 하이킹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 저녁은 지속 가능한 해산물 만찬이 어떨까. 캐주얼한 식사를 원한다면 훅 레스토랑Hook Restaurant에서, 좀 더 격식 차린 분위기를 원한다면 블루 워터 카페Blue Water Café에서 신선한 밴쿠버를 음미해보자.

© Destination Vancouver/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

34

오타와 감상하기

숨어 있던 미감을 일깨우는 캐나다 수도에서의 짧은 여정.

THEME ● 여정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실내 걸작들

하루를 온전히 할애해 오타와의 박물관을 둘러보자. 오타와에 캐나다 대부분의 국립박물관이 모여 있다. 먼저 캐나다 역사박물관Canadian Museum of History에서 캐나다 역사와 문화, 선주민의 발자취에 대해 알아본다. 캐나다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Canada은 화강암과 유리로 지어진 아름다운 외관만큼 화려한 예술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종종 전통 구슬 세공 시연 등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1920년대 비행기를 전시 중인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 Canadian Aviation and Space Museum과 비밀스러운 지하 벙커가 자리한 캐나다 전쟁박물관 Canadian War Museum도 빼놓을 수 없는 장소. 마지막으로 동전 수집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캐나다 왕립조폐국Royal Canadian Mint도 빠트리지 말자.

야외 걸작들

오타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바깥에서도 풍부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리도 운하를 따라 천천히 산책을 즐겨보자. 현지인들은 이곳에서 여름에는 자전거와 카약을 타고, 겨울엔 스케이트를 타곤 한다. 스케이트웨이Skateway로 연결되는 도우스 호수Dow's Lake로 내려가면 얼음 위 야외 미술관을 구경할 수도 있다. 또는 인터집 로저스Interzip Rogers를 통해 오타와강 위 37m 높이에서 최대 시속 40km로 움직이며 도시 전체를 아찔하게 조망해도 좋다. 해가 진 뒤에는 유령이 출몰한다는 도시 곳곳의 장소를 찾아가는 혼티드 워크The Haunted Walk에 참여해 초자연적인 모험을 떠나보면 어떨까.

i destinationontario.com
4일간의 여정

© Ottawa Tourism

© Ottawa Tourism

SHOP. TASTE. PLAY.

바이워드마켓ByWard Market은 갤러리와 부티크뿐 아니라 파머스 마켓 등으로 활기가 넘친다. 훌륭한 레스토랑과 카페, 바 등도 즐비하다. 현지의 길티 플레저인 비버테일BeaverTail 페이스트리를 꼭 맛보자!

© Ottawa Tourism

© Destination Toronto

© Destination Toronto

35 토론토 만끽하기

THEME ● 여정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캐나다 제1의 도시를 다르게 즐기는 3일.

1일차

토론토는 뉴욕의 브로드웨이 Broadway와 런던의 웨스트엔드 West End에서 떠오르는 극작가의 무대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북미 최고의 극장 도시로 손꼽힌다. 여행을 계획할 때 멀비시 극장The Mirvish Theatre, 팩토리 극장The Factory Theater, 소울페퍼Soulpepper, 오페라 아틀리에The Opera Atellier 등 극장별 스케줄을 확인해보자.

2일차

이제 도시를 장악하는 라이브 음악에 흠뻑 빠져볼 차례. 드레이크 호텔Drake Hotel, 엘 모캄보El Mocambo, 호스슈 태번Horseshoe Tavern, 댄포스 뮤직홀Danforth Music Hall을 포함해 클럽과 콘서트장이 무려 수백 개에 달한다. 리드미컬한 음악에 몸을 맡긴 후에는 토론토에서 가장 핫한 밀 스트리트 브루어리Mill Street Brewery에 들러 로컬 증류주를 맛보는 건 어떨까.

3일차

여행의 피로는 고급스러운 스파에서 풀자. 포시즌스Four Seasons, 샹그릴라Shangri-La, 리츠칼튼Ritz-Carlton, 세인트 레지스St. Regis 같은 호텔을 추천한다. 그 외에 도심에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토론토 제도Toronto Islands의 핸런포인트Hanlon's Point 해변도 휴식을 취하기 좋다.

destinationontario.com
3일간의 여정

© Destination Ontario

36 온타리오 주 드라이브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destinationontario.com
15일간의 여정

토론토부터 천섬까지 자동차로 누비는 15일간의 여정.

토론토
 # 가족 여행객을 위한 다이내믹 시티
불과 58초 만에 CN 타워 꼭대기에 오른다. 바로 옆에 위치한 리플리 아쿠아리움 오브 캐나다Ripley's Aquarium of Canada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랜드마크. 혹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캐나다 원더랜드Canada's Wonderland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보는 건 어떨까.

나이아가라 폭포
 # 자연과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나이아가라 공원 발전소Niagara Parks Power Station에서 폭포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폭포의 놀라운 힘이 어떻게 활용되어왔는지 배운 뒤에는 나이아가라 시티 크루즈Niagara City Cruises에 몸을 싣고 폭포 속으로 들어가보자. 식당, 놀이기구, 기념품숍은 클리프턴 힐 Clifton Hill에 모여 있다.

블루마운틴
 # 산에서 만끽하는 다채로운 액티비티
블루마운틴 리조트Blue Mountain Resort에서 리지 러너 마운틴 코스터Ridge Runner Mountain Coaster 등 액티비티를 섭렵해보자. 그 외에도 윈드 라이더 트리플 집라인Wind Rider Triple Ziplines, 세그웨이 투어Segway Tour 등 역동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무스코카
 # 마음을 비우기 좋은 사색의 마을
고즈넉한 호수와 숲을 즐기기 알맞은 무스코카 Muskoka는 다채로운 로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소박한 로지에 머무르며 작은 마을을 조용히 탐험해본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증기선인 RMS 세그운RMS Segwun에 올라 무스코카 호수를 순항하며 운치를 더해도 좋다.

오타와
 # 물놀이에 제격인 근교 휴가지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칼립소 워터파크Calypso Waterpark의 어마어마한 파도, 35개가 넘는 슬라이드, 수상 게임을 놓치지 말자. 특히 이곳의 파도풀은 미국 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수영 후 맛보는 비버테일의 페이스트리는 더없이 달콤하다.

킹스턴과 천섬
 # 무궁무진한 영감의 땅
온타리오호 북쪽 끝에 걸쳐 있는 18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섬Thousand Islands. 섬의 숫자만큼 낚시, 골프, 사이클링 등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어퍼 캐나다 빌리지Upper Canada Village와 포트 헨리 국립 사적지Fort Henry National Historic Site에서는 마치 1800년대로 돌아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37 캘거리 지역사회를 경험하는 여행

숨어 있던 미감을 일깨우는 수도에서의 짧은 여정.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visitcalgary.com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캘거리. 이곳에서 현지인의 삶을 보다 깊숙이 탐방해보자.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캘거리 팜야드Calgary Farmyard에서는 캘거리의 농장 문화와 집라인, 조랑말 타기 등 액티비티를 두루 체험할 수 있다. 캐나다 스포츠 명예의 전당Canada's Sports Hall of Fame으로 향해 캐나다인의 열정을 알아보자. 캐나다 유일의 국립 스포츠 박물관으로, 4만m² 면적에 12개 전시실, 극장, 인터랙티브 전시 등을 갖추었다.
현지인과 함께 도시를 탐방해봐도 좋다. 캘거리 그리터스Calgary Greeters는 현지인 가이드와 여행객을 무료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버타 푸드 투어스는 현지인 가이드의 안내와 함께 미식을 경험하는 여러 상품을 선보인다.
캘거리에는 나이트 라이프 장소가 수없이 많지만, 조금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텔루스 스파크 사이언스 센터TELUS Spark Science Centre의 스파크 애프터 다크 행사를 추천한다. 연 4차례, 밤이 깃든 센터에서 주류와 음악, 과학이 함께하는 자리다. 엑시트 캘거리Exit Calgary, 레벨 1 이스케이프Level 1 Escape 등 다양한 테마로 꾸민 이스케이프 룸도 여럿이다.
캘거리에서 파머스 마켓은 일상의 일부다.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크로스로드 마켓Crossroads Market과 캘거리 파머스 마켓등은 식음료부터 공예품까지 폭넓은 셀러 라인업과 푸드 홀을 자랑한다. 밀라르빌 파머스 마켓Millarville Farmers' Market은 창립 100년 넘은 지역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40여 년 전통의 마켓이다.
하루 정도는 근교의 자연 속으로 떠나보자. 동물 윤리를 준수하는 스노이 올 슬레드 도그 투어스Snowy Owl Sled Dog Tours와 함께 로키산맥에서 개가 끄는 썰매를 즐길 수 있다. 밴프 트레일 라이더스Banff Trail Riders는 100여 년 전부터 여행자들이 지나던 길을 따라 말을 타고 밴프의 야생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행 떠나기 전에 달력을 체크하자. 5월에 열리는 캘거리 마라톤Calgary Marathon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로, 어린이 코스부터 50km 코스까지 모든 참가자에게 열려 있다. 8월의 테이스트 오브 캘거리Taste of Calgary는 캘거리 최대의 야외 미식 축제. 라이브 음악과 여러 이벤트가 함께한다.

© Tourism Calgary

© Calgary Farmers Market

38 퀘벡 시티에서 샤를부아까지 강을 따라가는 로드트립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인트로렌스강을 따라가며 자연과 역사, 미식과 스릴을 넘나드는 205km 여정. 몽모랑시 폭포M에서 경이로운 절벽이 솟은 샤를부아까지, 아름다운 풍광 속을 자동차나 자전거, 오토바이로 달려보자.

1일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올드 퀘벡을 산책하고 몽모랑시 폭포 공원Parc de la Chute-Montmorency을 방문한다. 83m 높이 몽모랑시 폭포를 케이블카, 집라인, 현수교에서 만끽하자.

2일차

오를레앙섬의 미식을 경험하자. 콩피세리 티기두Confiserie Tigidou에선 퀘벡산 잼과 시럽을 시식할 수 있다. 카시스 몬나 에피Cassis Monna & Filles는 와인, 블랙커런트 가공품, 유제품을 두루 선보인다.

© Steve Deschênes

© Dominique Lafond

3일차

몽모랑시 폭포역에서 샤를부아 열차Train de Charlevoix를 타고 베생폴Baie-St-Paul까지 당일 여행을 다녀오자. 가는 내내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베생폴은 예술 갤러리로 유명한 작은 마을이다. 스파 노르딕 르 제르맹Spa Nordique Le Germain에서 피로를 풀어도 좋다.

4일차

페리를 타고 쿠드레섬Île aux Coudres에 다녀오자. 아름다운 자연 속을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누비고, 현지 먹거리도 맛보자.

5일차

레어블망Les Éboulements에서 라말베이La Malbaie까지, 30km에 이르는 세인트로렌스 루트St. Lawrence Route를 달려보자. 라말베에 도착해 절벽 위에 자리한 페어몬트 르 마누아르 리숄리외에 묵으면 된다.

6일차

샤를부아 미식 트레일Charlevoix's Flovour Trail은 라말베에서 프티리비에르생프랑수아 Petite-Rivière-Saint-François까지 이어진다. 사과주, 크래프트 맥주, 치즈, 오가닉 육류 등 지역 농장의 생산품을 두루 접할 수 있다.

bonjourquebec.com
6일간의 여정

39
캐나다 최고의 **국립공원**

캐나다 각 주와 준주마다 자리한 47개 국립공원과 국가 역사 유적지, 해양보존지역은 저마다 매력을 지닌다. 캠핑장, 가이드 투어를 미리 신청하면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parks.canada.ca

+인기 스타

밴프 국립공원 | 알버타 주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캐나다 로키산맥의 가장 유명한 목적지. 재스퍼 국립공원과 더불어 캐나다 로키마운틴 공원의 일부. 세계 10대 절경인 레이크 루이스도 이곳에 위치한다.

재스퍼 국립공원 | 알버타 주
캐나다 로키산맥 최대의 국립공원. 콜롬비아 빙원, 990km가 넘는 하이킹 트레일, 수천 종의 야생 동식물이 기다린다.

+야생 속 모험

나하니 국립공원 | 노스웨스트 준주
고산 툰드라, 아황산 온천, 나이아가라 폭포 높이의 2배인 버지니아 폭포까지. 수상 비행기로만 닿을 수 있다.

퍼시픽림 국립공원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핑 명소인 롱비치, 카약 명소인 브로큰 그룹섬 공원,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웨스트코스트 트레일의 세 구역으로 나뉜다.

+이색 매력

그로스몬 국립공원 |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
지질학적 경이를 누비는 하이킹 코스, 피오르 보트 탐험, 빙하수로 양조한 맥주, 5,000여 마리 무스. 무엇이 더 필요한가?

아유이툭 국립공원 | 누나부트 준주
북극의 피오르와 빙하, 빙원 사이에서 개썰매, 이글루 숙박, 하이킹을 경험하자.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국립공원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붉은 바위 절벽을 따라가는 해변 트레킹, 빨간 머리 앤의 그린 게이블스, 코브헤드 하버 등대가 기다린다.

케이프브레튼 국립공원 | 노바스코샤 주
대서양에 접한 그림 같은 공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길, 캐버트 트레일도 빼놓지 말자.

라이딩마운틴 국립공원 | 마니토바 주
흑곰, 회색늑대, 코요테, 바이슨을 만날 수 있는 생물권 보전지구. 아름다운 하이킹 트레일이 수두룩하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알버타 주에만 6개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국립 및 주립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밴프와 재스퍼 국립공원 외 아래 4개 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공룡주립공원 | 알버타 주
자연이 깎은 경이와 공룡 화석이 기다리는 황무지. 지금껏 55종 넘는 수백 개의 공룡 해골이 발굴되었다.

헤드 스매시드 인 버펄로 점프 | 알버타 주
5,800년간 이어진 블랙풋 선주민의 사냥법은 절벽 아래 버펄로 사체층과 사냥 관련 유물을 남겼다.

우드버펄로 국립공원 | 알버타 주
캐나다 최대의 국립공원. 버펄로 보호구역이며, 다양한 액티비티와 별 관측의 성지.

워터튼레이크 국립공원 | 알버타 주
큰뿔양, 산양, 엘크, 흑곰, 버펄로를 만날 수 있는 생물관 보전지역. 로키산맥 내 워터튼글레이셔 국제평화공원의 일부다.

+바다 같은 강과 함께

사우전드아일랜드 국립공원 | 온타리오 주
1,000개의 섬을 품은 이곳은 카약, 카누 등 수상 스포츠, 캠핑의 성지다.

사그네이-세인트로렌스 해양공원 | 퀘벡 주
사스네이강 피오르와 세인트로렌스강이 맞닿는 해양생물 보전지역에서 고래 관찰과 수상 스포츠를 즐기자.

40
캐나다 로키산맥으로 떠나는 8일간의 모험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8일간의 여정

© Brewster Travel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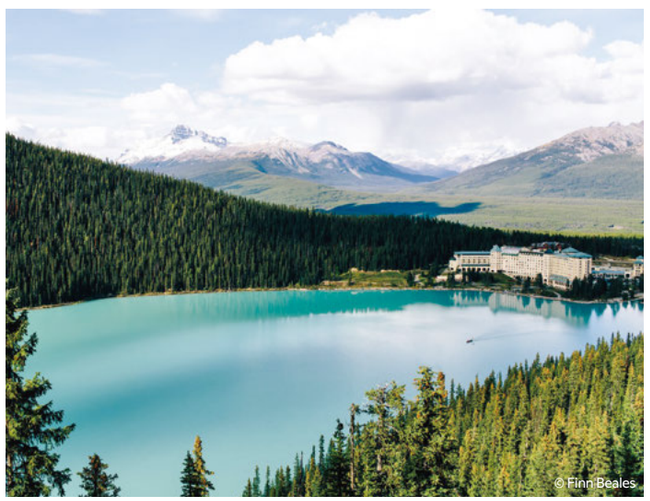
알버타의 주도 에드먼튼에서 출발해 로키산맥을 거쳐 캘거리까지, 도시와 대자연을 넘나드는 자동차 여행을 떠나자. 총 거리 834km. 16시간가량 운전하는 루트다. 첫 이틀간 에드먼튼의 이모저모를 탐방한다.

1일차에는 에드먼튼 헬리콥터 투어를 체험하고, 캐나다를 대표하는 인류 자연사 박물관인 로열 알버타 뮤지엄Royal Alberta Museum을 방문하자. ICE 디스트릭트ICE District에는 레스토랑, 바, 카페가 즐비하다.

2일차에는 캐나다 서부 시각예술의 성지인 아트 갤러리 오브 알버타Art Gallery of Alberta를 방문하고, 에드먼튼 푸드 투어스Alberta Food Tours와 함께 올드 스트래스코나Old Strathcona 지구의 미식을 경험한다. 포트 에드먼튼 파크Fort Edmonton Park에선 선주민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3일차에는 에드먼튼에서 4시간여 달려 재스퍼Jasper에 도착한다. 재스퍼 스카이트램Jasper SkyTram은 캐나다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공중 케이블. 6개 산맥, 애서배스카강Athabasca River, 도시까지 바라보인다. 자연에 둘러싸인 페어몬트 재스퍼 파크 로지Fairmont Jasper Park Lodge에 묵자.

4일차는 로키산맥을 즐길 차례. 재스퍼에서 1시간 50분 떨어진 재스퍼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애서배스카강 래프팅은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 멀린 레이크 크루즈Maligne Lake Cruise는 재스퍼에서 가장 장엄한 호수를 항해해 스피리트섬Spirit Island까지 가는 90분간의 여정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밤하늘 보호지인 만큼, 밤하늘 관측 투어도 체험해보자.


© Finn Beales

5일차에는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어드벤처Columbia Icefield Adventure의 아이스 익스플로러 버스로 애서배스카 빙하를 탐험하고, 글래시어 스카이워크Glacier SkyWalk를 걸어본다. 헬기 투어도 좋은 선택. 재스퍼에서 3시간 50분 달려,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Fairmont Chateau Lake Louise에 묵는다.

6일차에는 레이크 아그네스 티 하우스Lake Agnes Tea House까지 하이킹을 한 뒤 1시간여 달려 밴프로 향한다. 밴프 곤돌라Banff Gondola 정상에는 레스토랑, 전망 데크, 보드워크가 기다린다. 케이브 앤 베이슨 국립사적지Cave and Basin National Historic Site는 캐나다 최초 국립공원의 기원인 천연 온천을 간직한다.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Fairmont Banff Springs Hotel에서 피로를 풀자.

7일차 로키산맥에서의 마지막 날을 캔모어Canmore에서 보내자. 밴프에서 1시간 20분 거리다. 캔모어 근교 그로토산Grotto Mountain 아래, 래츠 네스트 동굴Rat's Nest Cave로 동굴 투어를 떠난 뒤, 카나나스키스 마운틴 로지Kananaskis Mountain Lodge에 묵고, 리조트 내 스파에서 여독을 풀자.

8일차에는 리조트에서 1시간 45분 달려 캘거리에 도착한다. 파머스 마켓과 시내 맛집을 둘러보는 미식 투어를 즐기고, 캐나다 최대의 생활사 박물관인 헤리티지 파크 역사 마을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을 방문하자. 도시 전경이 바라보이는 메이저 톰Major Tom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 아츠Hotel Arts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다.

41

밴쿠버섬 동부 해안으로 떠나는 탐험

THEME ● 여정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i hellobc.com
5~7일간의 여정

빅토리아에서 포트 하디까지, 500여 km 해안 로드 트립을 떠나자. 해변과 숲, 폭포를 지나며 선주민 문화와 예술, 지역 다이닝, 수제 맥주 양조장, 와이너리를 탐험한다.

© Destination BC/Garry Henkel

출발 00:47
밴쿠버에서 출발해 99번, 17A번, 17번 고속도로를 타고 트왓슨 페리 터미널Tsawwasen Ferry Terminal로 향해 모험을 시작하자.

트왓슨 Tsawwasen 02:28
BC 페리스BC Ferries를 타고 서던걸프 제도Southern Gulf Islands를 가로질러 밴쿠버섬 남쪽 끝 스와츠만Swartz Bay까지 항해하자.

빅토리아 Victoria 00:46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도의 자연과 문화, 요리를 체험하자. 페리로 닿는 항구 마을 밀 베이Mill Bay는 해변, 피크닉, 하이킹으로 인기 있다. 부차트 가든Butchart Gardens에서 한가로이 즐기고, 킨솔 육교Kinsol Trestle로 유명한 코위찬 계곡 트레일Cowichan Valley Trail을 걸어도 좋다.

던컨 Duncan 00:47
토템 도보 투어로 코위찬 부족의 역사를 알아보자. 북쪽 근교의 소메노스 늪지 보호구역Somenos Marsh Conservation Area은 조류 200여 종의 서식지다. 체마이누스Chemainus는 지역 역사를 표현한 벽화 40여 점으로 유명하다. 방문자 센터에서 벽화 지도를 제공한다.

나나이모 Nanaimo 00:34
바다와 숲을 두루 탐험하자. 카페리로 가브리올라섬 Gabriola Island에 가면, 멋진 해안 절벽 지형인 맬라스피나 갤러리스Malaspina Galleries를 볼 수 있다. 나나이모 항구에서 10분 떨어진 세이섯순Saysutshun(뉴캐슬섬)은 연중 인기 있는 캠핑지. 네크 포인트 파크Neck Point Park를 비롯한 해안 공원을 방문하고, 암모나이트 폭포Ammonite Falls로 하이킹을 떠나도 좋다.

팍스빌 Parksville 00:54
넓은 해변과 소도시를 품은 여름 여행지. 래스트레버 비치 주립공원Rathtrevor Beach Provincial Park에서 캠핑을 하고, 파크스빌 커뮤니티 파크Parksville Community Park에서 해변과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워터파크를 즐긴다. 근교 잉글리시맨 리버 폴스 주립공원Englishman River Falls Provincial Park과 리틀 콸리컴 폴스 주립공원Little Qualicum Falls Provincial Park에서 폭포를 구경하고, 올드 컨트리 마켓Old Country Market에 들러보자.

코목스 밸리 Comox Valley 00:38
다음 목적지로 가기 전, 버클리만Buckley Bay에 들렀다 가자. 이곳에서 페리로 가까운 혼비섬Hornby Island에 가면 해변과 캠핑, 패들링,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코목스 밸리의 코트네이Courtenay, 코목스Comox, 컴벌랜드Cumberland에선 산악자전거, 활기찬 다이닝, 마운트 워싱턴 알파인 리조트Mount Washington Alpine Resort를 추천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공원인 스트래스코나 주립공원Strathcona Provincial Park을 여행하는 거점이기도 하다. 코목스 호수Comox Lake 북단을 거쳐 파라다이스 미도스Paradise Meadows와 포비든 플라토Forbidden Plateau로 떠날 수도 있다.

캠벨 리버 Campbell River 02:30
'연어 낚시의 수도'라 불리는 캠벨 리버에서 혹등고래, 범고래, 회색곰 등 야생동물 관찰 투어를 경험하자. 엘크 폭스 현수교Elk Falls Suspension Bridge와 폭포, 퀸샘강 부화장Quinsam River Hatchery도 빼놓을 수 없다.

텔레그래프 코브와 포트 하디 Telegraph Cove & Port Hardy
그림 같은 텔레그래프 코브는 에코 어드벤처와 야생동물 투어, 고래 관찰 여행으로 인기 있다. 페리로 금방 닿는 코르모란트섬Cormorant Island의 알러트만Alert Bay에서 선주민의 역사를 경험해도 좋다. 섬의 최북단, 포트 하디에는 카약과 수상 비행기, 야생동물 투어, 케이프스콧 주립공원Cape Scott Provincial Park이 기다린다. 여정을 마치고 지금껏 온 길을 차로 되짚어 가거나, 페리로 주 중심 해안까지 가서 모험을 계속하자.

©Tourism Vancouver Island/Ben Giesbrecht

© Andy Best @andy_best

함께 들를 곳
공룡주립공원에서 발굴한 화석은 로열 티렐 박물관Royal Tyrrell Museum으로 옮겨진다. 10만 점이 넘는 고생물 표본을 소장한 이곳에선 백악기 공룡뿐 아니라 해양생물, 해조류, 포유류, 곤충, 식물 화석까지 볼 수 있다. tyrrellmuseum.com

© Royal Tyrrell Museum of Palaeontology

42

1억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공룡주립공원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 선주민 문화

SEASON 여름 가을

i albertaparks.ca

1억 년 전 공룡이 거닐던 알버타 주 배드랜드Badland 이곳의 공룡주립공원Dinosaur Provincial Park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세계 최대의 공룡 화석 발굴지다. 과거 강바닥이던 이 지역은 공룡 화석화에 유리한 환경이었고, 규모가 워낙 방대해 여전히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암 바닥이 미끄러우니 편한 신발을 챙겨 가이드 도보 투어를 떠나자. 배드랜드는 캘거리에서 140km 떨어져 있고, 렌터카나 현지 투어 상품으로 여행하는 게 좋다. 수천 년의 세월은 이곳에 천혜의 풍광을 빚어 놓았다. 공원 인근 호스슈 협곡Horseshoe Canyon, 배드랜드 전망대Badland Observatory 등도 둘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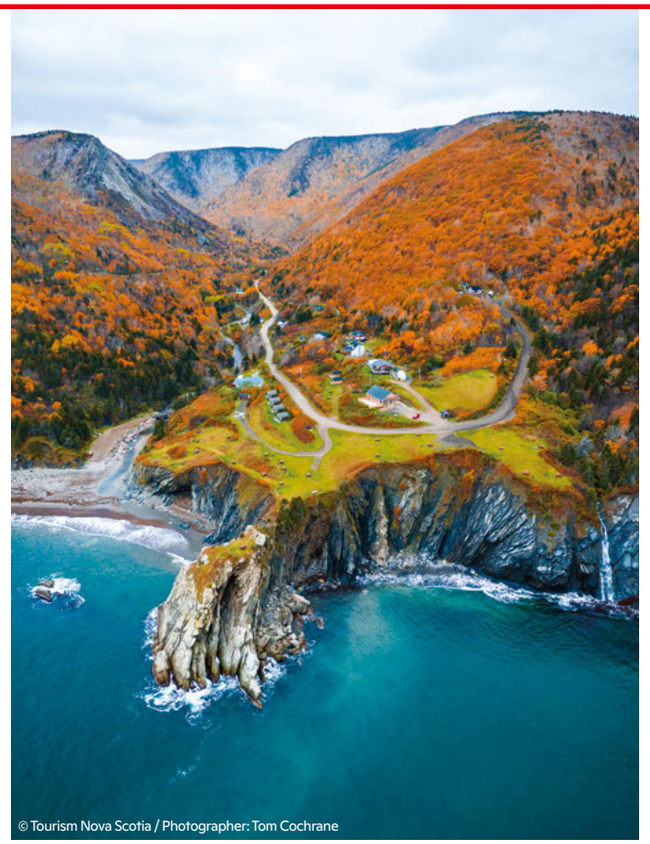
43

경이로운 해안도로 카봇 트레일

THEME ● 여정 ● 웰니스&커넥션

SEASON 여름 가을

노바스코샤 주 케이프브레턴섬Cape Breton Island 북단을 돌아보는 약 300km 길이의 카봇 트레일Cabot Trail은 전 세계의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꼽힌다. 케이프브레턴 하이랜드 국립공원Cape Breton Highlands National Park의 자연보호구역을 휘감고 있는 이 길은 경이로운 자연으로 가는 관문이 되어줄 것이다. 가을에는 툰드라, 삼림, 늪지대가 빨강, 노랑 등의 색조로 활기차게 물든다. 들쭉날쭉한 해안선을 따라 산봉우리는 해발 300m까지 뻗어 내려가 바다와 이어진다. 파도는 절벽을 침식해 곶과 극적인 시스택sea stack을 창조한다. 지역사회는 바다에서 고래와 바다표범 등을 볼 수 있는 야생동물 투어를 제공한다. 걸프만과 대서양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곶은 고래 떼와 바닷새, 어선 등을 발견하기 이상적인 장소다. 중간중간 차를 세우고 아름다운 풍광에 푹 빠져보자.


© Tourism Nova Scotia / Photographer: Tom Cochrane

SUSTAINABILITY
COMMITMENT
여행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캐나다 여행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여행지와 현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며 이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여행의 가치를 완성해 갑니다.

© Mountain Madness Tours

44

© Mélanie Jean, Destination Québec cite

녹색 열쇠로 문을 여는 호텔

THEME 지속가능성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캐나다의 호텔들은 일찌감치 로컬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친환경 정책과 책임 여행을 중시해왔다. 그중 캐나다호텔협회의 국제 환경 인증인 '그린 키 글로벌Green Key Global'에서 무려 4개의 녹색 열쇠 인증을 받은 페어몬트의 호텔 두 곳을 찾아가본다.

페어몬트 르 샤토 프롱트낙

퀘벡에 위치한 이 호텔은 세인트로렌스강St. Lawrence River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다. 현지인의 자부심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퀘벡의 고풍스러운 경관을 완성시켜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라발대학교Université Laval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활동이 인상적이다. 샤토 보레알Château Boréal 프로그램은 2박 이상 머무는 투숙객이 하우스키핑을 거절하여 시트와 수건의 교체를 줄이면 1박당 나무 한 그루를 라발대의 학술림인 몽모랑시 숲Forét Montmorency에 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필요한 청소와 세탁을 줄이는 선택이 에너지와 물을 아끼고 더 나아가 지역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덕분에 몽모랑시 숲에는 2022년까지 75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식재됐다고 한다. 체크아웃 시 자신의 이름으로 심어진 나무의 수가 적힌 증명서를 받는 즐거움은 덤! 한편 호텔 옥상에서는 매년 약 300kg에 달하는 채밀 작업이 이루어진다. 7만 마리의 꿀벌이 벌통 4개에 부지런히 꿀을 채집해놓은 결과이기도 하다. 도시 양봉은 개체수가 감소하는 꿀벌의 번식을 도와주며 식물종의 다양성과 인간의 식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물의 수분에 영향을 미치는 꿀벌이 멸종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량 사라지게 된다. 1년에 두 번 채밀하는 이곳의 꿀은 호텔의 각종 요리와 칵테일에도 사용된다.

i fairmont.co.kr/frontenac-quebec
퀘벡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 차로 약 20분

페어몬트 더 퀸 엘리자베스

몬트리올에서도 페어몬트만의 높은 환경 인식 수준을 체감할 수 있다. 이 호텔은 쇼핑몰과 비즈니스 지구가 집합한 도시 중심부에서 1960년대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잃지 않고 있다. 특유의 올곧은 가치관은 1990년 론칭한 페어몬트 그린 파트너십 프로그램Fairmont Green Partnership Program에서 두드러졌다. 당시 조직한 녹색위원회는 호텔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예를 들어 욕실에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는 어메니티를 비치하고 객실마다 재활용 수거통을 설치했다. 또한 레스토랑에서는 남은 식재료를 구세군에 기부하고 무분별한 벌목 등 환경문제를 부추기는 팜오일 사용을 중단했으며 공정무역으로 수입한 커피와 차를 취급한다. 현재 호텔은 관광산업을 넘어 몬트리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호텔 개보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자선단체 28곳에 한화로 약 3억4,28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기부했다. 그리고 호텔 곳곳에 로컬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해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동시에 투숙객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있다.

i fairmont.co.kr/queen-elizabeth-montreal
몬트리올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 차로 약 20분

© Francis Gagnon, Destination Québec cite

© Destination Vancouver, Rishad Daroowala

© Destination Vancouver, Harbour Air

45

친환경 **밴쿠버 여행**

THEME 지속가능성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걷거나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친환경 수상비행기를 타고 즐기는 3일간의 여정.

1일차

탄소중립 공항인 밴쿠버국제공항에서 여정을 시작해본다. 스카이트레인 SkyTrain을 타고 25분 이동하면 도심 한가운데 이를 수 있다. 한때 산업단지에 불과했던 그랜빌섬은 밴쿠버의 활기를 만끽하기 적절한 곳이다. 다양한 문화와 레시피가 스며들어 전 세계의 여행자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 섬에 자리 잡은 에코마린 패들스포츠 센터Ecomarine Paddlesports Centres에서는 폴스강False Creek을 따라 유유히 흐르는 카약 투어를 제공한다. 카약을 탄 채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반짝이는 바다가 만들어내는 낭만을 즐겨보자. 혹은 밴쿠버의 정상인 그라우스 마운틴Grouse Mountain으로 향해 풍력 터빈인 아이 오브 더 윈드Eye of the Wind를 살펴봐도 좋다. 이 풍력 터빈은 무려 260가구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고 있다. 해가 질 무렵에는 정돈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오션 와이즈Ocean Wise 인증 레스토랑을 둘러보자. 해당 레스토랑은 밴쿠버의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식재료로 신선한 요리를 선보인다.

2일차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모비Mobi를 이용해 도시를 둘러본다. 스탠리 공원은 400만㎡가 넘는 광활한 부지에 걸맞게 다채로운 자전거 경로를 제공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클 시티 투어 앤 렌털스Cycle City Tours & Rentals에서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도 좋다. 방파제와 맞닿은 자전거 도로도 추천한다. 바닷가의 상쾌한 공기를 머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11km의 자전거 도로를 거침없이 달릴 수 있다. 오후에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트롤리 버스를 타고 밴쿠버 컨벤션 센터, 반두센 보태니컬 가든 방문자 센터VanDusen Botanical Garden Visitor Center 등의 친환경 건물을 감상해보자. 그린 빌딩스 오디오 투어스Green Buildings Audio Tours를 통해 밴쿠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탈바꿈한다.

3일차

하버 에어Harbour Air에서 개발한 수상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를 내려다보면 도시와 자연의 관계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밴쿠버 남부에 본거지를 둔 하버 에어는 전기 전문가들과 지속 가능한 비행기 개발에 힘쓰는 탄소중립 기업이다. 록우드 어드벤처스 얼티메이트 시티 앤 네이처 어드벤처Rockwood Adventures' Ultimate City & Nature Adventure에서는 여행자가 도시의 자연을 탐험하며 자연스레 그 역사까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노스쇼어North Shore 산맥과 캐필라노 현수교공원 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 등이 대표적인 코스다. 여정의 마무리는 스왈로우 테일 투어스 포래징 필드 트립Swallow Tail Tours Foraging Field Trip이 안내해주는 식용 동식물에 관한 컬리너리 투어 또는 새먼 앤 바녹 비스트로Salmon n' Bannock Bistro에서 내놓는 전통 선주민 요리를 추천한다.

© Destination BC

© Harbour Air Seaplanes

Tip

교통비 절약 밴쿠버 곳곳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페어몬트 퍼시픽 림Fairmont Pacific Rim, 더 버라드The Burrard, 오푸스 호텔 밴쿠버Opus Hotel Vancouver, 메이페어 호텔 그룹Mayfair Hotels Group 등.

자원 절약 밴쿠버 크루즈 터미널은 선박이 정박하는 동안 엔진을 끄고 도시의 전기를 사용하는 쇼어 파워Shore Power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매년 2,200톤의 온실가스를 감소시킨다.

destinationvancouver.com
3일간의 여정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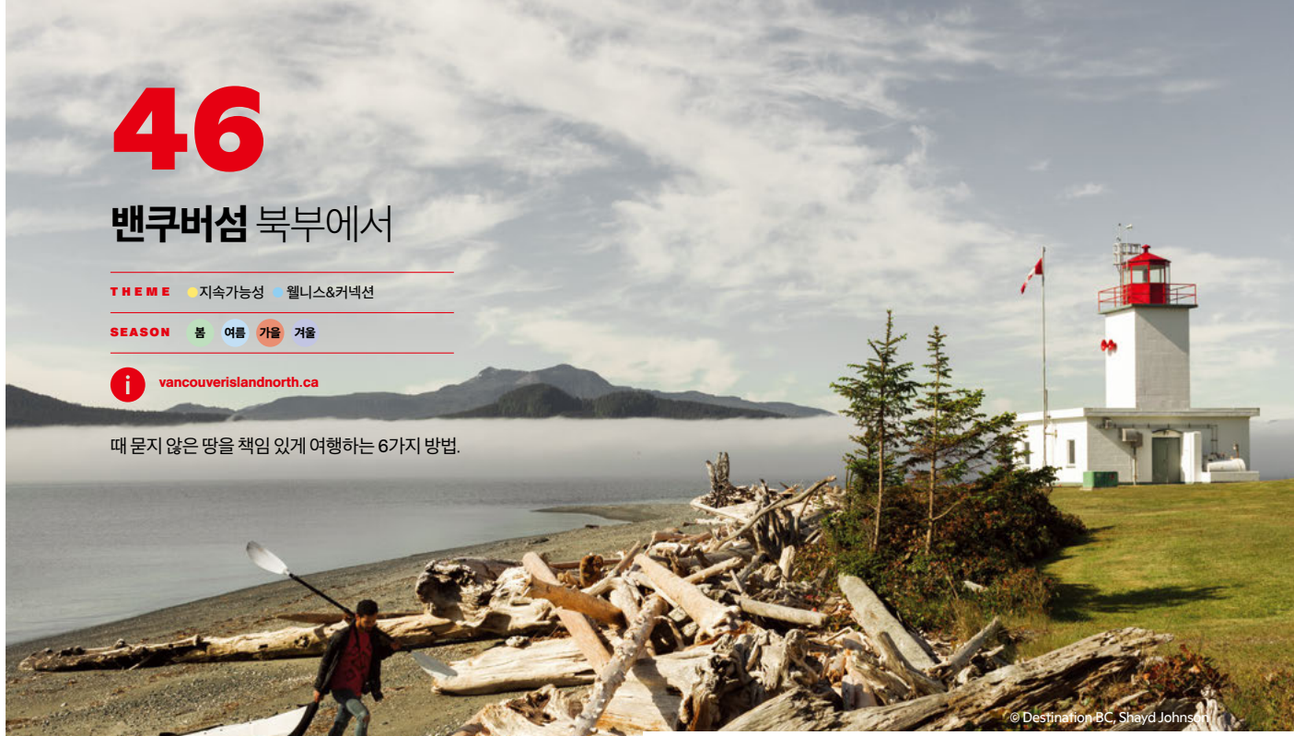
밴쿠버섬 북부에서

THEME 지속가능성 웰니스&커넥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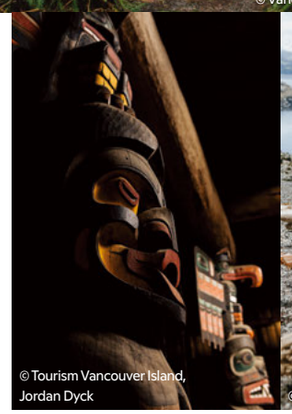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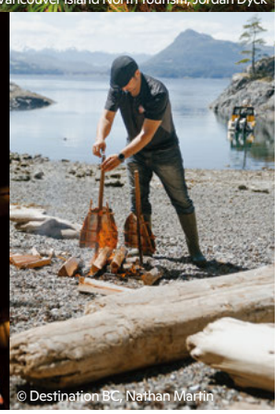
vancouverislandnorth.ca

때 묻지 않은 땅을 책임 있게 여행하는 6가지 방법.


© Destination BC, Shayd Johnson

© Vancouver Island North Tourism, Jordan Dyck


© Tourism Vancouver Island, Jordan Dyck


© Destination BC, Nathan Martin

1 흔적 없애기

밴쿠버섬 최북단에 자리한 스토레이스 비치Storey's Beach는 모래사장 위에 조개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해변이다. 조개를 포함해 조약돌 등은 외부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케이프스콧 주립공원Cape Scott Provincial Park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점화 장치 사용을 삼가자. 카페 귀도Cafe Guido 같은 현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컵, 병, 빨대 등을 구할 수 있다.

2 선주민 존중하기

콰콰카와쿠Kwakwaka'wakw 종족은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선주민으로 밴쿠버섬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우미스타 문화센터U'mista Cultural Centre에 들러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관습을 익혀보자. 덧붙여 얼러트 베이Alert Bay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토템 기둥을 관찰할 수 있다.

3 야생동물 보호하기

포트 하디Port Hardy에 위치한 콰츠 새몬 센터Quatse Salmon Centre에서 야생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본다. 추가로 밴쿠버섬이 연어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혹은 시 울프 어드벤처스Sea Wolf Adventures에서 제공하는 투어에 참여해도 좋다. 회색곰이나 해양동물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다. 케이프스콧 주립공원 곳곳에는 곰의 은닉처가 자리하고 있다. 그들의 터전에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남겨서는 안 된다. 간혹 사람의 손길에 익숙해진 야생동물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이다.

4 현지인 되어보기

여행은 현지의 경제를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다. 클럭스웨 리조트Cluxewe Resort는 포트 맥네일Port McNeill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현지인이 운영하고 있다. 캠핑을 현지식으로 즐길 수 있으며 여행자가 아닌 현지인처럼 하루를 보내기 좋다.

5 날씨 극복하기

밴쿠버섬은 험준한 지형과 해안성 기후 때문에 다양한 날씨가 공존한다. 특히 겨울에는 예기치 않은 폭풍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트레일에 오를 때는 시작점에 놓인 표지판을 꼼꼼히 살피자. 종종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거나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구간이 포함돼 있다.

6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밴쿠버섬의 일상에 합류해보자. 또는 포트 맥네일에서 출발해 맬컴섬Malcolm Island에 자리한 외딴 마을인 소인툴라Sointula에 이르는 BC 페리를 타는 건 어떨까. 소인툴라 리소스 센터Sointula Resource Center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준다.

IN DUNCAN
캐나다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도시인 던컨에 자리 잡은 알데리아 팜 앤 카페 Alderlea Farm & Cafe는 무려 200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농부인 존John과 케이티Katy는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신념 아래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길러낸다. 덕분에 카페의 메뉴는 계절의 영향을 받아 변화무쌍하다. 혹시 한식이 그립다면 메뉴 중 김치 수프림kimchi supreme 피자를 주문해보자. 토마토소스를 베이스로 김치와 양파, 파인애플 등을 얹어 색다른 맛을 자아낸다. 웹사이트에서 로컬 수제 비누와 차 등을 판매하니 참고하자.

ⓘ alderleafarm.com

IN NORTH SAANICH
더 루스트 팜 베이커리 앤 빈야드 비스트로The Roost Farm Bakery & Vineyard Bistro는 가족이 운영하는 멀티레스토랑이다. 가든 마켓과 카페와 비스트로를 겸하고 있어 현지인들도 부담 없이 찾는다. 설립자인 해미시 크로포드Hamish Crawford와 그의 가족들이 직접 땅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농장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닭을 키우고 빵을 만들며 바쁜 하루를 보낸다. 레스토랑과 연결된 와이너리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장으로도 사용되곤 하는데 약 65명을 수용할 만큼 규모가 넉넉하다.

ⓘ roostfarmcentre.com

IN PARKSVILLE
2001년 문을 연 리틀 퀼리컴 치즈웍스Little Qualicum Cheeseworks는 밴쿠버섬에서 스위스식 치즈를 만들어보겠다는 한 부부의 포부에서 시작되었다. 클라크Clarke와 낸시 굴레이Nancy Gourlay가 약 35만m² 규모의 농장을 구입해 젖소, 송아지, 염소, 양 등 가축 45마리를 길렀다. 덕분에 여행자들은 농장에서 갓 짜낸 우유와 신선한 치즈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2021년에는 앨버트 고터Albert Gorter와 첼시 엔스툭Chelsea Ennstook이 농장을 인수하여 치즈와 여행을 연계했다. 이곳에서 진정한 팜 투 테이블을 느끼려면 농장에서 샤퀴트리를 산 뒤 조용한 잔디밭에 앉으면 된다.

ⓘ cheeseworks.ca

IN GALIANO ISLAND
밴쿠버섬 남부와 로어 메인랜드 Lower Mainland 사이에 위치한 갈리아노섬에서 또 다른 팜 투 테이블을 만나본다. 필그림 레스토랑Pilgrimme Restaurant은 숲과 해안을 배경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이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셰프인 제시 맥클레리Jesse McCleery는 식재료를 대부분 섬에서 채집한다. 과거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에서 다섯 번의 계절을 지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무화과, 모과, 잣 등으로 맛을 낸 요리를 주문해 섬의 향취를 느껴보자. 여유가 있다면 자매 레스토랑인 차머 피자Charmer Pizza를 함께 방문해도 좋다.

ⓘ pilgrimme.ca

© Destination Vancouver, Vision Event Photography Inc.

47

밴쿠버 섬 남부에서

THEME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장에서 식탁까지 팜 투 테이블의 정수를 경험하다.

© Destination BC, Local Wanderer

48

1년 내내 **사이클링**

THEME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캐나다의 자전거 친화 도시들을 마음껏 달려본다.

퀘벡 주, 몬트리올
2011년부터 매년 코펜하겐화 지수Copenhagenize Index 상위 20위에 들어온 몬트리올은 사이클링에 진심인 도시다. 코펜하겐화 지수는 자전거 친화 도시의 순위를 매기는 지표로 주로 암스테르담, 위트레흐트, 안트베르펜 등 유럽권 도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북미권의 자부심인 몬트리올은 약 1000km 자전거 도로를 토대로 도시 곳곳에 안전한 사이클링 경로를 제공한다. 특히 통근용 자전거부터 화물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자전거를 타기에 수월하다는 점이 사이클리스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이미 휘슬러와 같은 다이내믹한 도시 덕분에 산악 자전거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여기에 속한 밴쿠버는 또 다른 장르의 차분한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는 도시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답게 자전거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몬트리올보다 짧지만 약 400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 또한 세심하게 관리되어 2020년 코펜하겐화 지수에서 19위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 Destination Vancouver, Cycle City Tours

© Ottawa Tourism

© Eva Blue - Tourisme Montréal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빅토리아
빅토리아는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교적 평평한 지형이라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즐기기 적합하다. 도시 자체에는 자전거 도로가 41km밖에 없지만 교외로 연결되는 775km 코스를 이용하면 장대한 여정이 가능하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코스는 갤로핑 구스 리저널 트레일Galloping Goose Regional Trail, 로치사이드 리저널 트레일Lochside Regional Trail, E & A 엔 레일 트레일E & A Rail Trail 등이 있다. 빅토리아는 대부분의 버스에 자전거를 비치할 공간이 있으니 무리하게 사이클링을 완수하지 않아도 된다.

© Tourism Pemberton, Craig Barker

온타리오 주, 오타와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는 사이클링 인프라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이다. 현재 약 80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도시의 랜드마크를 단숨에 둘러보기 좋다. 여행자가 가장 선호하는 경로는 리도 운하Rideau Canal 가장자리를 아우르는 코스. 특히 5월 캐나다 튤립 축제Canadian Tulip Festival 기간에 맞춰 방문하면 기억에 남는 사이클링이 될 것이다.

사스카츄완 주, 사스카툰
앞선 도시들에 비해 규모는 가장 작지만 사이클링과 관련한 인기와 인프라만큼은 뒤지지 않는 사스카툰. 이곳은 여행용 자전거를 타고 포장된 도로 외에 수많은 길을 탐험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도시다. 사스카츄완강Saskatchewan River에서 출발해 도시를 조금 벗어난 세인트 바베St Barbe 혹은 서덜랜드 비치Sutherland Beach 인근을 달려보자. 다소 거칠지만 나만의 코스를 발견해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WELLNESS & CONNECTIONS

자연을 교감하며 진정한 웰니스를 경험하라

캐나다 특유의 열린 공간으로 성큼 들어가,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깊밀한 교감과 현지인들의 진심 어린 환대를 통해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행지에서의 웰니스가 무엇인지 재해석하며 진정한 삶의 환기를 탐구합니다.

© Vancouver Island North Tourism, Jordan Dyck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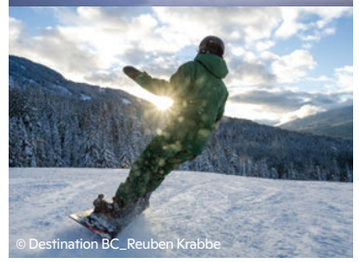
설원 위를 활주하라

THEME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겨울

전 세계의 스키어와 보더를 끌어들이는 캐나다의 수준급 스키 리조트들.

© Tourism Whistler_Justa Jeskova



© Destination BC_Reuben Krabbe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휘슬러 블랙콤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휘슬러 블랙콤Whistler Blackcomb은 북미에서 가장 큰 스키 리조트이다. 초보자부터 익스트림 스키어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지형과 200개 이상의 슬로프, 시간당 70만여 명을 태우는 고속 리프트, 16개의 알파인 볼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두 개의 산을 잇는 피크 투 피크 곤돌라PEAK 2 PEAK Gondola를 타고 광활한 활주로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스키 외의 액티비티를 원한다면 버블리 튜브 파크BUBLY Tube Park로 향하자. 어린이를 위한 키즈 레인이 별도로 있으며 온라인 예약 시 저렴하게 입장이 가능하다. 아프레스 스키 시설로 보행자 거리가 조성된 빌리지에는 20여 개의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펍뿐만 아니라 200여 개의 상점이 위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스키 시즌이 끝난 이후인 5월까지도 개장해 환상적인 환경에서 스프링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다.

i whistlerblackcomb.com

알버타 주, 선샤인 빌리지

밴프 국립공원에 자리 잡은 선샤인 빌리지Sunshine Village는 이름에 걸맞게 화창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다. 7m의 눈으로 덮인 경사 너머로 로키산맥이 화려한 전망을 연출한다. 이 스키 리조트 지형의 20%는 초보자에게 적합하며 대부분은 중급 스키어에게 알맞다. 특히 고트아이산Goat's Eye Mountain은 중급 스키어가 도전하기 좋은 굴곡진 언덕을 보유하고 있다. 활주를 마친 뒤 20분 거리에 자리한 밴프의 레스토랑에서 푸짐한 만찬을 즐겨보자. 캐나다 로키 지역,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에 위치한 3개의 스키 리조트인 밴프 선샤인Banff Sunshine, 레이크 루이스 스키 리조트Lake Louise Ski Resort, 마운트 노퀘이Mt. Norquay는 스키 빅3로 꼽힌다. 세 곳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리프트권을 구매하면 다양한 스키 환경을 두루 경험하기 좋다. 리프트권은 호텔로 배달이 가능하며 숙소와 세 스키 리조트를 잇는 무료 셔틀도 이용할 수 있다.

i skibanff.com
skibig3.com

퀘벡 주, 몽트랑블랑

몬트리올에서 북서쪽으로 130km 정도 이동하면 닿게 되는 몽트랑블랑Mont Tremblant은 북미의 알프스라 불리는 아기자기한 리조트 마을이다. 그중 몽트랑블랑 리조트는 로렌시안 고원Laurentides의 가장 높은 지대(해발고도 875m)에 위치해 겨울이면 캐나다 동부 최대 규모의 스키 리조트로 변모한다. 102개의 레일을 모두 합하면 그 길이가 무려 82km에 이른다고 한다. 리프트와 곤돌라의 규모도 어마어마해 시간당 약 2만8,000명의 스키어를 운송할 수 있다. 또한 리조트 내 광장을 중심으로 카페, 레스토랑, 상점이 즐비해 도보로 여행을 하는 스키어에게 부담이 적다.

i tremblant.ca

온타리오 주, 블루마운틴

토론토와 2시간 거리에 있는 블루마운틴Blue Mountain 스키 리조트는 가족 단위 스키어가 주로 방문하는 곳이다.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나이아가라 절벽Niagara Escarpment을 따라 뻗어 있는 지형이 흥미를 더해준다. 일일 강습을 원할 경우 스노 스쿨Snow School에서 스키의 기본적인 자세를 잡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혹은 레이스, 프리스타일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하니 색다른 스키를 경험하고 싶다면 리조트에 문의해보자.

i bluemountain.ca

Tip

헬리 스키 헬리콥터로 리프트도 없는 높은 산에 올라가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짜릿한 액티비티! CMH의 시그니처 트립은 8명 이하의 스키어와 2명의 가이드가 하나의 그룹으로 움직인다. 헬리콥터의 기종인 벨 212를 타고 일주일 동안 약 30km의 수직 활주를 기록하게 된다.

i cmhheli.com

50 골프의 묘미

THEME ●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캐나다 전역에 걸쳐 환상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골프 코스가 산재한다. 그 중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퀘벡 주의 대표 골프 코스를 소개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켈로나

오카나간 밸리Okanagan Valley는 체리, 복숭아, 사과 등을 길러내는 과수원과 포도가 무성한 와이너리로 잘 알려진 풍요의 땅이다. 오카나간 밸리의 휴양 도시인 켈로나Kelowna를 베이스캠프로 삼으면 1시간 내의 거리에 선택할 수 있는 골프 코스가 19개에 달한다. 그중 하베스트 골프 클럽Harvest Golf Club에서 라운딩을 즐긴 뒤 근거리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향해 로컬 식재료로 만든 요리와 와인을 페어링해 맛보는 건 어떨까.

i harvestgolf.com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휘슬러

스키의 성지로 불리는 휘슬러는 봄부터 가을까지 최고의 골프 리조트이다. 이 휘슬러 골프 클럽Whistler Golf Club은 20세기 골프계를 풍미한 아널드 파머가 캐나다에서 최초로 디자인한 4개의 챔피언십 골프 코스를 보유하고 있다. 작은 마을 같은 휘슬러 빌리지 내에 위치해 식사와 쇼핑, 스파 등도 즐길 수 있다. 휘슬러 북부에 있는 빅 스카이 골프 클럽Big Sky Golf Club은 페어웨이 너머로 우뚝 솟아 있는 마운트 커리Mount Currie의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다.

i whistlergolf.com/experience

© Big Sky Golf Club

© Tourism PEI, John Sylvester

© Tourism PEI, Alex Bruce

퀘벡 주, 샤를부아

압도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샤를부아 지역에 속한 라말베는 작지만 알찬 항구도시다. 현지인의 휴가지로 사랑받는 도시라서 여름철에는 숙소와 교통편 등의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라말베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페어몬트 르 마누아르 리슐리에 골프 클럽Fairmont Le Manoir Richelieu Golf Club은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곳이다. 저명한 골프 코스 디자이너 대럴 헉스함Darrell Huxham이 설계를 맡아 강과 숲과 페어웨이가 눈부신 조화를 이룬다.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지나게 되는 자작나무 숲의 향취는 덤.

i fairmont-manoir-richelieu.com

퀘벡 주, 퀘벡 시티

퀘벡 주의 주도이자 주의회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퀘벡 시티는 도시 곳곳에서 격조가 묻어난다. 로열 퀘벡 골프 클럽Club de Golf Royal Québec 역시 1874년 창설한 이래 회원제를 기반으로 세미 프라이빗을 고수하며 도시의 분위기에 발맞추고 있다. 럭셔리한 골프장답게 페어웨이가 매우 깔끔하고 개인 레슨을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 중이다. 참고로 복장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청바지, 테니스 스커트, 트레이닝복, 탱크톱 등의 착용을 금하며, 금속 스파이크가 달린 골프화도 신을 수 없다.

i royalquebec.com

Tip

도전!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인 프린스에드워드섬에도 약 27개의 골프 코스가 있다. 그중 링크스 앳 크로부시 코브Links at Crowbush Cove는 곳곳에 자리한 벙커와 까다로운 지형으로 승부사들의 감각을 일깨우는 골프장으로 유명하다.

i golfpei.ca

우아하고 유연하게

알버타 주를 대표하는 도시인 밴프에서 가장 쉬운 난도로 손꼽히는 보우 리버 트레일Bow River Trail을 따라 보우 폭포Bow Falls까지 하이킹을 이어가보자. 편도로 약 1.2km에 불과한 짧은 거리이지만 흥미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 먼저 시내에서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당분을 충전한 뒤 유서 깊은 보우 리버 브리지Bow River Bridge를 건너간다. 강과 함께 펼쳐진 숲길은 햇빛이 뜨거운 날에도 시원하게 유지된다. 자연스레 연결되는 나무 계단을 걷다 보면 전망대 아래로 폭포와 안개가 자아내는 신비로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컨솔레이션 레이크 트레일Consolation Lakes Trail은 호수에 쌓인 빙퇴석만으로도 시선을 끄는 하이킹 코스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이 트레일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도 한다. 보다 우아한 하이킹을 원한다면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보자. 아이스필드 파크웨이Icefields Parkway에 위치한 기지에서 출발하는 여정은 유려한 산맥과 굽이치는 강물을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다. 덧붙여, 헬리 스키로 잘 알려진 CMH를 통한 헬리 하이킹도 충분히 가능하다.

화사하고 화려하게

유콘 준주는 주로 여행자에게 겨울 오로라 관찰지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하이커에게는 이곳의 봄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5월이 되면 유콘 준주는 밤 11시까지 해가 지지 않는다. 덕분에 오후 4시 무렵 스피릿 캐년Spirit Canyon에서 시작하는 트레일에 올라도 부담이 없다. 약 1시간 30분의 코스는 다소 체력이 소모되지만 그 끝에 마주하는 타키니강 계곡Takhini River Valley이 모든 피로를 해소시켜준다. 오리올 트레일Auriol Trail은 꽃이 만발한 들판을 한없이 걸어볼 수 있는 코스이다. 하지만 기온이 아직 쌀쌀하므로 두툼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4시간 30분에 달하는 이 트레일의 정점은 봉우리 뒤로 태양이 천천히 내려앉는 일몰! 또 다른 장면의 골든 아워를 목격하고 싶다면 칠쿠트 트레일Chilkoot Trail을 추천한다. 이 트레일은 1890년대 알래스카 주에서 유콘 준주까지 금광을 찾아 횡단했던 광부들의 주요 경로였다. 현재는 일부가 폐쇄되었지만 이 코스를 비추는 황금빛 태양만큼은 여전하다고.

완만하고 안락하게

퀘벡 시티에서 차로 30분만 달리면 장장 100km가 넘는 트레일 코스가 교차하는 자크카르티에 국립공원Parc National de la Jacques-Cartier에 도착할 수 있다. 하이킹을 하는 동안 빙하 계곡과 자작나무 숲을 마주하게 되며 운이 좋으면 댐을 만들고 있는 비버가 등장할 수도 있다. 스테이션 투리스티크 뒤시니Station touristique Duchesnay는 퀘벡 시티 근교에 자리한 리조트로 25.7km의 짧고 완만한 트레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을 감상할 수 있는 르로셰Le Rocher 트레일이 인기. 저녁에는 일부 구간에 조명이 켜져 하이킹을 낭만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퀘벡 시티 시내에서 40km 떨어진 몽생탕Mont-Sainte Anne의 비교적 낮은 봉우리(해발고도 625m)는 초보 하이커의 발길을 이끈다. 42km 트레일을 완주하면 정상에서 오를레앙섬Île d'Orléans을 조망할 수 있다. 리프트와 곤돌라를 운행하니 하이킹 시 참고하자.

알아두면 재밌는 잡학사전

1992년 캐나다 연방 탄생 125주년을 기념하여 트랜스 캐나다 트레일Trans Canada Trail이 조성되었다. 1993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한화 약 5만원당 1m의 트레일을 연장해왔다. 이후 다양한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보태져 2021년 8월 기준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를 연결하고 캐나다 13개 주와 준주를 횡단하는 2만8,000km의 세계 최장 트레일이 완성되었다. 트랜스 캐나다 트레일은 '커넥션'을 목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직선 도로가 아니라 1만5,000개의 도시, 농촌, 선주민의 터전을 거쳐 가는 우회 도로로 조성되었다. 육로와 수로를 모두 완주한 최초의 인물은 영화 제작자 다이앤 웰란Dianne Whelan. 무려 6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51 하이킹으로 캐나다 일주

THEME ● 웰니스&커넥션

SEASON 여름 가을

© Northern BC Tourism, Shayd Johnson

더디고 단단하게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다양한 트레일을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샤인코스트Sunshine Coast 상류에 위치한 13km 길이의 인랜드 레이크 트레일Inland Lake Trail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평평하게 다져진 상태다.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럿 있어 하이킹의 경계를 낮춰준다. 하이다과이Haida Gwaii 북쪽 끝에서 시작되는 나이쿤 주립공원Naikoon Provincial Park의 트레일은 정상까지 다소 비탈진 코스가 이어진다. 하지만 맑은 날에는 전망대에서 알래스카Alaska를 볼 수 있어 하이커들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오디오가 있는 촉각 해설 패널이 구비되어 있다. 밴쿠버섬의 서쪽 해안을 가장 깊숙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쇼어파인 보그 트레일Shorepine Bog Trail을 따라 걸으며 온대 우림을 통과하는 것이다. 퀴시티스 방문자 센터Kwisitis Visitor Centre에서 휠체어를 대여해준다.

다양하고 다채롭게

캐나다의 하이킹 트레일은 온타리오 주에서 완전해진다. 먼저 다채로운 트레일을 보유한 알곤퀸 주립공원Algonquin Provincial Park을 찾아가본다. 반나절 내의 하이킹을 원한다면 부스의 록 트레일Booth's Rock Trail, 룩아웃 트레일Lookout Trail, 스프루스 보그 보드워크 트레일Spruce Bog Boardwalk Trail을 추천한다. 브루스 페닌슐라 국립공원Bruce Peninsula National Park은 하이킹 도중 갖가지 동굴을 탐험할 수 있다. 특히 하이커를 인디언 헤드 코브Indian Head Cove와 그로토Grotto로 이끄는 코스가 환상적. 하이킹의 정수라 불리는 나이아가라 글렌Niagara Glen의 트레일은 협곡 깊숙한 곳을 탐사한다. 이곳에서 카롤리니안숲Carolinian Forest을 거치며 구불구불한 코스가 나타나는데 고대 암석과 무성한 양치식물 덕분에 지루할 겨를이 없다.

Tip

봄 눈이 녹기 시작하는 계절이므로 몇 주간 트레일의 상태를 살핀 뒤 하이킹에 나서야 한다. 봄에도 모기 퇴치제는 필수.

여름 숲속에 위치한 트레일을 찾아 떠나며 나름의 피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수분 보충을 위해 마실 물을 충분히 챙기자.

가을 모기가 없어 하이커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절. 일교차가 크므로 따뜻한 옷과 우비를 챙겨야 한다.

겨울 스노슈즈나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며칠 동안 눈이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트레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것.

© Noel Hendrickson

© Tourism Saskatchewan, Carey Shaw Photography

52 인생 온천

THEME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 선주민 문화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독을 풀어줄 캐나다의 천연 온천 4곳.

유콘 준주, 이클립스 노르딕 핫 스프링스
화이트호스Whitehorse 시내에서 28km 거리에 위치한 이클립스 노르딕 핫 스프링스Eclipse Nordic Hot Springs는 19세 이상 성인만 출입이 가능한 온천이다. 지질학적 관점에 따르면 이곳 온천수의 기원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46.5℃ 물을 분당 387L씩 생산해내는데, 엄청난 양의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실리카,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다. 온천 외에 온수로 가열한 난방 타일을 활용한 릴랙스 룸Relax Room 등을 함께 운영한다.

eclipsenordichotspringsc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레이디엄 핫 스프링스
쿠트니 국립공원Kootenay National Park 내에 있는 레이디엄 핫 스프링스Radium Hot Springs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미네랄 온천 중 하나이다. 싱클레어 캐년Sinclair Canyon의 붉은 절벽을 감상하며 근육을 이완할 수 있다. 단, 간혹 큰뿔양bighorn sheep이 출몰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11월에 이곳을 방문하면 본격적으로 큰뿔양을 테마로 한 계절을 만끽하는 헤드뱅어 페스티벌Headbanger Festival에 참여할 수 있다.

radiumhotsprings.com

알버타 주,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
설퍼산 정상 부근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Banff Upper Hot Springs는 해발 1585m, 북미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자리 잡은 온천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온천수는 37~40℃ 사이를 유지하며 100% 천연 미네랄 수질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정부기관인 캐나다 공원관리국 Parks Canada가 운영을 도맡아 연중무휴로 문을 여는 것이 큰 장점. 현장에서 수영복, 수건, 사물함을 대여해준다.

hotsprings.ca

사스카추완 주, 리틀마니투 호수
'칼륨과 석유와 밀의 도시'라 불리는 새스커툰Saskatoon 남동부에서는 독특한 온천욕이 가능하다. 바로 캐나다 버전의 사해인 리틀마니투 호수Little Manitou Lake 덕분. 물의 염분 함량이 리터당 180g에 달하는데 이는 사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염도로 사람의 몸을 둥둥 띄울 수 있는 수치다.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 함량도 높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실제로 19세기 선주민들은 이 호수로 아픈 사람을 데려와 물에 담그며 치유 의식을 행했다고 전해진다.

tourismsaskatchewan.com

Tip

영혼의 양약 에인스워스 핫 스프링스 리조트Ainsworth Hot Springs Resort는 자연 치유의 진가를 발휘하는 곳이다. 선주민의 예술품과 전통적인 음식과 뜨거운 광천수를 몸과 마음 깊이 향유해보자.

ainsworthhotsprings.com

© Government of Yukon, Andrew Strain

53 쉼이 있는 로지

THEME ● 지속가능성 ● 웰니스&커넥션 ● 선주민 문화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캐나다의 자연 속에 편안히 머무르며 신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웰빙을 누리다.

© Destination Canada

숲에서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Great Bear Rainforest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태평양 연안에 있는 수많은 야생 곰의 터전이다. 그 중심부에 스피릿 베어 로지Spirit Bear Lodge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로지는 사람과 야생동물과 자연 간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며 범사회적 웰니스를 추구하는 중이다. 로지 자체가 키타수 하이하이스 선주민의 소유로 그들의 오래된 땅과 문화유적지와 야생동물 관찰 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3박, 4박, 7박 등 투어 패키지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매일 다른 장소에서 매번 다른 야생동물을 마주한다는 점이 이색적. 선주민 가이드가 능숙한 안내와 함께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전통 설화를 들려주어 순식간에 투어에 몰입하게 된다. 투어 패키지는 12세 이상부터 참가할 수 있다.

spiritbear.com

바다에서
투숙 시 마치 바다와 연결된 기분이 든다는 포고 아일랜드 인Fogo Island Inn. 이 로지는 지구의 네 모퉁이 중 하나에 속해 있으며 모든 객실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극적인 창문으로 이뤄져 있다.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포고 아일랜드 인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도 손꼽힌다. 운영 잉여금 전액을 포고섬에 재투자하여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 과거 포고섬은 본토와 멀리 떨어진 위치 탓에 다소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는데 덕분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7계절로 4계절 사이사이에 트랩 버스Trap Berth, 베리Berry, 팩아이스Pack Ice라는 계절이 존재한다. 이 세 계절은 시기별로 포고섬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를 주제로 삼았는데, 예를 들어 베리 무렵에는 투숙객도 언덕으로 나가 블루베리, 마시베리marshberry, 크로베리crowberry 등을 잔뜩 따와 건강하게 맛볼 수 있다.

fogoislandinn.ca

하늘에서
북극권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그레이트슬레이브 호수 북부 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 옐로나이프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인정한 오로라 관측지다. 3박 체류 시 평균 95%, 4박은 평균 98%의 확률로 오로라를 목격할 수 있다고. 트라우트 록 로지Trout Rock Lodge에서 쉬어 가며 그 확률을 조금 더 높여보자. 로지의 위치가 도시와 멀고 관측지와 가까워 수시로 오로라가 출몰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에는 개썰매, 얼음낚시, 스노모빌 등의 액티비티로 활기를 더하거나 옐로나이프로 향해 시티 투어를 해도 좋다. 현장에서 액티비티에 필요한 헬멧 등의 안전 장비와 두꺼운 의류를 빌려준다. 참고로 옐로나이프의 오로라 관측 최적기는 11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이다.

spectacularnwt.com

Tip

곳곳의 웰빙 스테이
나만의 호사를 선사하는 네이처 로지들.

CHOICE 1. 글램핑
브라운스 베이 리조트Browns Bay Resort brownsbayresort.com
슈트 레이크 로지Chute Lake Lodge chutelakelodge.ca
라디우스 리트리트Radius Retreat radiusretreat.com

CHOICE 2. 베이스캠프
스피릿 오브 더 웨스트 어드벤처스Spirit of the West Adventures kayakingtours.com
그레이트 리버 피싱Great River Fishing greatriverfishing.com

CHOICE 3. 독특한 전망
어드벤처 돔스Adventure Domes adventuredomes.ca
블랙 박스 컨테이너 홈Black Box Container Home blackboxcontainerhome.com
마이라 캐년 로지 앤 랜치Myra Canyon Lodge and Ranch myracanyon.com
칠코 익스퍼리언스 와일더니스 리조트Chilko Experience Wilderness Resort chilkoexperience.com
더 쇼어라인The Shoreline theshorelinetofino.com
위카니니시 인Wickaninnish Inn wickinn.com
피터슨 포인트 레이크 로지Peterson's Point Lake Lodge petersonspointlake.com

CHOICE 4. 에코 스테이
님모 베이 리조트Nimmo Bay Resort nimmobay.com
니피카 마운틴 리조트Nipika Mountain Resort nipika.com
카바나 데솔레이션 에코 리조트Cabana Desolation Eco Resort cabanadesolation.com

CHOICE 5. 웰니스 스테이
네크타르 요가 리트리트Nectar Yoga Retreat nectaryoga.ca
REO 래프팅 리조트REO Rafting Resort reorafting.com
셰이드 오브 제이드 인 앤 스파 Shades of Jade Inn and Spa shadesofjade.ca
에코 밸리 랜치 앤 스파Echo Valley Ranch & Spa evranch.com

CHOICE 6. 야생 스테이
페어웰 하버 로지Farewell Harbour Lodge farewellharbour.com
쿠트제이마틴 와일더니스 로지|Khutzeymateen Wilderness Lodge grizzlytour.com
리틀 울프 리조트Little Wolf Resort littlewolfresort.com
클레이컷 와일더니스 로지Clayoquot Wilderness Lodge clayoquotwildernesslodge.com
소노라 리조트Sonora Resort sonoraresort.com

CHOICE 7. 팜 스테이
메리데일 사이더리 앤 디스틸러리 Merridale Cidery and Distillery merridale.ca
앨더우드 팜Alderwood Farm alderwoodfarm.com

CHOICE 8. 목장 스테이
에코 밸리 랜치 앤 스파Echo Valley Ranch & Spa evranch.com
몬태나 힐 게스트 랜치Montana Hill Guest Ranch montanahillguestranch.com
쓰리 바스 게스트 랜치Three Bars Guest Ranch threebarsranch.com

전나무 로드
빅토리아Victoria에서 북쪽으로 176km 떨어진 쿰스Coombs 마을의 아일랜드 하이웨이Island Highway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다양한 명소에 시선을 빼앗기기 쉽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단 15분 거리에 위치한 맥밀란 주립공원MacMillan Provincial Park은 삼림욕에 더없이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수령 800년도 더 된 더글러스 전나무와 삼나무가 시대를 초월한 향기를 내뿜는다. 공원에서 가장 큰 나무는 둘레가 무려 9m에 달한다고 한다. 역사 깊은 숲 내음을 한껏 들이마신 뒤에는 캐머런 호수Cameron Lake에서 수영이나 낚시를 즐겨도 좋겠다.

bcparks.ca/macmillan-park

© Destination BC, Graeme Owsians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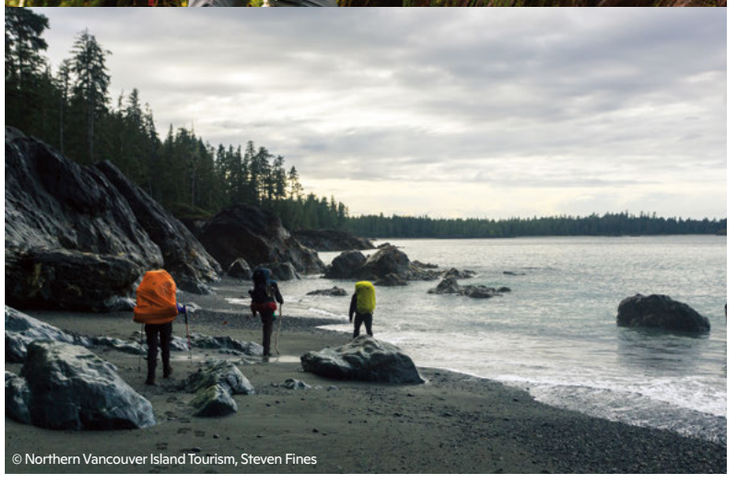
54

THEME 지속가능성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숲속을 걸어요

밴쿠버섬이 선사하는 산림 테라피.

© Vancouver Island North Tourism, Jordan Dyck


© Northern Vancouver Island Tourism, Steven Fines

가문비나무 로드
평범한 삼림욕에 지루함을 느끼는 여행자에게는 케이프스콧 주립공원Cape Scott Provincial Park을 추천한다. 밴쿠버섬 북서쪽 끝에서 케이프스콧 트레일Cape Scott Trail이 시작되는데 이 트레일은 종착지인 케이프스콧 등대Cape Scott Lighthouse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삼림욕의 성지인 시트카 가문비나무 숲에서 기운을 충전하고 나면 바위 지대, 소금 습지, 들쭉날쭉한 곳, 거친 해안선 등을 쉬지 않고 걸어야 한다. 간혹 출몰하는 바닷새, 바다사자, 물개, 해달을 만날 수도 있다.

bcparks.ca/cape-scott-park

적삼나무 로드
암피트리테 포인트Amphitrite Point에 있는 낡은 등대에서 라이트하우스 루프 트레일Lighthouse Loop Trail에 오른다. 1915년에 세워진 이 등대는 연간 260cm 이상의 강우량과 폭풍을 기록하는 지역의 궂은 날씨 탓에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트레일은 절벽과 해안을 따라 일방통행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끝에서 거대한 적삼나무 숲이 여행자를 반긴다. 800년 이상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숲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묘한 해방감이 든다.

wildpacifictrail.com

떡갈나무 로드
빅토리아 시내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자리한 마운트 더글라스 파크Mount Douglas Park는 삼림욕의 정석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이다. 울창한 숲 안에 수많은 종류의 양치식물이 자라나는데 특히 봄이 되면 태평양 북서부의 떡갈나무 종인 개리 오크garry oak가 대규모 군락을 이룬다. 언덕을 올라 정상에 이르면 이와 같은 풍경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다. 피톤치드 효과를 충분히 누린 후에는 코르도바 베이Cordova Bay(차량으로 10분 남짓)의 석양으로 여정을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victoriatrails.com

55

대자연과 교감하기

THEME 웰니스&커넥션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캐나다를 상징하는 단풍부터 폭포와 바위와 빙산과 은하까지, 경외심을 갖고 여정에 오른다.

© New Brunswick Tourism

© Destination Ontario, Andy Brooks

쏟아져 내리다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는 관광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자연 자원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폭포의 거대한 낙차는 이리 호수Lake Erie와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 사이를 흐르는 나이아가라강Niagara River의 고도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 두 호수를 포함한 오대호는 전 세계 수자원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담수생태계의 지표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성하는 폭포 3곳 중 가장 규모가 큰 호스슈 폭포Horseshoe Falls를 가까이 조망할 수 있는 저니 비하인드 더 폴스Journey Behind the Falls에 참여하면 웅장한 폭포의 가치가 더욱 크게 와닿는다. 눈앞에서 무려 세계 담수의 5분의 1이 쏟아져 내린다!

환하게 빛나다
캐나다 왕립천문학회가 선정하고 캐나다 공원관리국Parks Canada이 보존하는 13다크스카이 보호지구 13Dark-Sky Preserves가 대자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다크스카이 보호지구는 모든 형태의 빛 공해를 차단하여 별, 달, 은하를 쉽게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어둠 속에서 적응 및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청정 구역이다. 그중에서도 캐나다 내 가장 어두운 다크스카이 보호지구로 언급되는 그래스랜드 국립공원Grasslands National Park. 이 공원은 '더 많은 빛이 아닌 더 나은 빛'에 집중하며 낮과 밤의 주기를 철저히 지켜낸다. 다만 투어 시에는 안전을 위해 빨간색 셀로판지를 붙인 손전등을 지참한다. 적색광이 빛 공해를 줄이고 야간 시력을 유지해준다.

정교하게 깎다
동명의 주립공원 안에 자리한 호프웰 록스Hopewell Rocks는 펀디만Bay of Fundy의 반복적인 조수로 인해 형성된 기이한 암석들이다. 조수와 파도의 영향을 거세게 받은 하단부는 얇고 상단부는 두툼한 모양새다. 2km 해안선을 따라 20개가 넘는 암석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대부분 높이가 12~21m에 이르러 고개를 높이 치켜들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그 형태가 눈에 들어온다. 몇몇 암석은 여행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ET나 공룡 따위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근처를 맴도는 도요물떼새 무리를 관찰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조수에 따라 풍경이 시시각각 달라지니 사전에 조수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떨어져 나가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에서 궁극의 탐험을 떠나본다. 이곳은 캐나다에서 빙산을 관찰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특히 뉴펀들랜드 주에서 목격되는 빙산의 90%는 그린랜드와 캐나다 극지역에서 떠밀려 온 것이라고. 봄과 여름이면 하얀색부터 짙은 녹색까지 다양한 색과 모양을 띤 빙산들을 관찰할 수 있다. 투어 최적기는 3~7월이지만 4월과 5월에는 바다 얼음에 갇힐 위험이 있어 5월 말~6월이 가장 좋다. 빙산은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빙하 크기의 10%에 지나지 않으므로 빙하의 전체 길이 또는 2배 높이 만큼 거리를 둬야 한다. 현지에서는 주로 빙산 관찰 투어에 고래나 조류 관찰 투어를 결합한 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붉게 물들다
캐나다 동부의 휴양 리조트 단지인 블루마운틴. 가을에는 하이킹 코스 시닉 케이브Scenic Cave를 걸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신비로운 자연을 관찰하고 25m 높이의 현수교에서 발아래를 수놓은 짙은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리프트를 타고 더 높은 전망대에 올라 바라보는 가을 풍경 역시 아름답기는 마찬가지. 모험심이 강하다면 단풍을 가로지르는 집라인과 산악자전거에 도전해보자. 토론토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2시간 정도면 닿는 무스코카Muskoka. 1600여 개의 호수와 울창한 숲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가을의 장관이 펼쳐진다. 150여 년 전, 북미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증기 유람선이 여전히 여행자를 반겨준다. 이 지역에서 빼놓을 없는 단풍 명소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공원인 알곤퀸 주립공원Algonquin Provincial Park. 돌셋 전망대Dorset Lookout Tower에 올라 장엄한 가을 풍광을 한눈에 담아보거나 카누를 타고 공원 깊숙이 탐험하며 신비로운 단풍 숲을 누려본다.

INDIGENOUS CULTURE

풍요로운 선주민 문화의 발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700개 이상의 선주민공동체에는 고유의 역사와 언어, 관습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삶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문화와 예술, 전통을 배우는 것은 여행을 보다 풍부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알아두면 재밌는 잡학사전

6월 21일은 선주민의 날National Indigenous Peoples Day! 캐나다 전역에서 선주민을 기리는 축제, 전통 놀이, 액티비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56

선주민의 숨결

THEME ● 지속가능성 ● 선주민 문화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6가지 방법.

케짐쿠직 국립공원
Kejimkujik National Park
노바스코샤 주에 위치한 이 국립공원은 하이킹과 캠핑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공원을 보다 깊숙이 탐색하면 미크마크족Micmac의 유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암면 조각에 사냥, 낚시 등 미크마크족의 전통적인 삶의 형태가 새겨져 있다. 카누나 패들보드를 빌려 지난 몇 세대 동안 선주민이 사용해온 수로를 따라 노를 저어봐도 좋다. 다만 국립공원의 명칭인 '케임쿠직'이 선주민 언어로 '피곤한 근육'을 뜻하니 참고할 것.

parks.canada.ca

크산 선주민 민속마을과 박물관
Ksan Historical Village and Museum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북부 헤이즐턴Hazelton에 자리 잡은 이 민속마을과 박물관은 기트산족Gitxsan의 옛 터전을 재현한 장소다. 수천 년 동안 강가를 지켜온 선주민의 삶을 반영해 조성하였다. 총 7개의 선주민 전통 가옥이 있으며 이 중 첫 번째 가옥은 1959년에 지어졌다고 한다. 특히 토템폴, 전통 훈연소, 음식 저장소 등이 흥미롭다.

hazeltonstourism.ca

그레이트 노던 아트 페스티벌
Great Northern Arts Festival
노스웨스트 준주의 여름은 56일 동안 해가 지지 않는다. 지난 25년간 이어진 그레이트 노던 아트 페스티벌 덕분. 한밤중에도 120명의 화가, 조각가, 음악가, 선주민 예술가가 태양 아래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선보인다. 그위친족Gwich'in이 인형 만드는 과정을 구경하거나 어느 조각가의 손에서 탄생하는 북극곰 모양 비누를 살펴보자. 혹은 이누이트족Inuit의 힙합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춰도 좋다.

greatnorthernartsfestival.org

와누스케윈 헤리티지 파크
Wanuskewin Heritage Park
이 공원은 6000년 넘는 세월 동안 북부 선주민의 만남의 장이었다. 오늘날에는 선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배움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도자기 파편, 야생동물의 뼈, 돌무덤 등 고고학적 발굴지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 선주민 전통 방식으로 지은 티피에서 하룻밤 묵으며 따뜻한 차와 유럽 정착민이 선주민에게 알려주며 전해져 내려온 레시피로 만든 빵 배녹을 맛보는 건 어떨까.

wanuskewin.com

헤드 스매시드 인 버펄로 점프
Head-Smashed-In Buffalo Jump
약 6000년간 수많은 선주민이 버펄로를 사냥하던 곳으로 북미에서 가장 잘 보존된 사냥터 중 하나다. 자료관의 연대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선주민이 지형을 어떻게 활용하여 버펄로를 사냥했을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여름에는 선주민 댄서와 드럼 연주자가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headsmashedin.ca

마니토 아비 페스티벌
Manito Ahbee Festival
연주자가 북을 둥둥 울리기 시작하는 순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전통적으로 꾸며진 장소에서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랩을 하는 선주민들의 공연을 감상해보자. 크리족Cree, 오지브와족Ojibwa, 다코타수족Dakota Sioux 등 모든 부족을 아우르는 인터트라이벌 댄스Intertriabal Dance 시간이 되면 누구나 공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manitoahbee.com

© Northern BC Tourism, Shayd Johnson

CONSIDER TRADITION

하이다과이에 들어서기 전 여행자는 반드시 하이다과이 방문자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하이다과이를 책임감 있게 여행하겠다는 존중의 표시다!

57

하이다과이 재발견

THEME ● 지속가능성 ● 선주민 문화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 gohaidagwaii.ca, entreedestinations.com
4일간의 여정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속한 군도에서 느릿하게 보낸 4일.

© Northern BC Tourism, Shayd Johnson

© Destination BC, JF Bergeron

© Northern BC Tourism, Shayd Johnson

1일차

하이다과이Haida Gwaii 여행의 시작점은 모스비섬Moresby Island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샌드핏Sandspit. 이곳에 자리한 하이다 하우스 앳 틀랄Haida House at Tllaal이 앞으로 4일 동안 편하게 머물 로지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로지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칵테일을 한 잔 기울여보자. 해가 질 무렵에는 근처 틀렐강Tlell River이나 이스트 비치East Beach에서 산책을 즐겨도 좋다. 그사이 메인 로지에서 풍부한 로컬 만찬을 준비해놓는다.

2일차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오래전 케이일나가이Kay 'Llnagaay 혹은 바다사자 마을Sea-Lion Town로 불렸던 스키드게이트Skidegate의 고대 마을로 향한다. 마을 안에 세워진 하이다 헤리지티 센터Haida Heritage Centre가 여행자를 반긴다. 하이다 선주민이 고수했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그들이 사용했던 독특한 언어를 배워볼 수 있다. 그런 다음 하이다 카버 스튜디오Haida Carver Studio 같은 장인의 작업실을 찾아가보자. 현지 아티스트인 레오 가뇽Leo Gagnon이 선주민 조상을 기리기 위해 삼나무로 조각한 그릇, 드럼, 가면 등을 전시하고 있다.

3일차

보트를 타고 캐나다의 국립 사적지인 과이하나스 국립공원 보호구역Gwaii Haanas National Park Reserve에 이른다. 본격적인 투어는 고대 마을인 쿠우나 스케단스K'uuna Skedans에서 출발한다. 과거 마을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했던 하이다 와치맨Haida Watchman이 현재는 여행자를 위한 스토리텔러가 되어준다. 그들은 하이다 선주민의 노래, 춤, 음식, 설화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토템폴에 새겨진 이야기를 번역한다. 흥미로운 투어 뒤에는 바비큐 파티가 기다리고 있다.

4일차

마지막 일정은 그라함섬Graham Island에 있는 선주민 마을인 올드 마셋Old Masset 북부를 아우른다. 가이드와 함께 노스 비치North Beach, 블로 홀Blow Hole, 나이쿤 주립공원Naikoon Provincial Park의 토우 힐Tow Hill을 거쳐 가는 트레일에 오른다. 이 트레일은 용암 같은 암석과 우뚝 솟은 절벽과 안개 구름으로 뒤덮인 해안선 등 극적인 풍광을 선사한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가장 큰 생태보호구역인 로즈 스핏Rose Spit을 찾는 것도 잊지 말자.

58

창조적 유산

THEME ● 지속가능성 ● 선주민 문화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밴쿠버섬 선주민의 영감과 미감을 찾아서

© Destination Vancouver, Dannielle Hayes

© Indigenous Tourism BC, Kimberley Kufaas, I-Hos Gallery

아이호스 갤러리
I-HOS Gallery

화려한 색감의 입구가 여행자의 발길을 멈춰 세운다. 갤러리 전면에 조각된 것은 쌍두 바다뱀인 아이호스I-Hos와 고래 퀘네시Queneesh로 퍼스트네이션인 코목스족K'ómoks을 상징하는 생물이다. 내부에는 선주민 예술가들이 제작한 노스웨스트 코스트 Northwest Coast 작품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기념품으로 구입할 만한 소품이 많다는 것도 큰 장점. 바다 괴물 가면, 양모 담요, 삼나무 모자 외에 전통 패턴이 그려진 펜던트, 양말, 플래터 등을 알차게 구경하자.

ⓘ ihosgallery.com

시더 하우스 갤러리
Cedar House Gallery

밴쿠버섬 남부에 자리한 유클루렛 Ucluelet은 뉴찬룰스족Nuu-chah-nulth 언어로 '안전한 항구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시더 하우스 갤러리는 유클루렛에서 유일한 선주민 소유 미술관으로, 태평양 북서부 선주민 예술가들의 방대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적삼나무와 소나무로 조각한 틀레피카Tlehpika. 조각가인 잘메르 웬스토브Hjalmer Wenstob의 섬세한 기법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방문 전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 cedarhousegallery.com

©TIABC & TVI, Peter O'Hara

하우스 오브 힘위차 갤러리
House of Himwitsa Gallery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이누이트족Inuit과 메티스족Métis을 제외한 캐나다 선주민)이 운영하는 이 갤러리는 선주민 언어로 '노인에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갤러리는 이 의미를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현지 예술가들과 함께 공정무역 아트를 선보인다. 각 창조물에 담긴 이야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한 최선의 방침이라고.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 himwitsa.com

마크 로리아 갤러리
Mark Loria Gallery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주민 아트 갤러리 중 하나인 이곳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뛰어난 예술가들의 작품을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다. 이 갤러리는 매년 최대 6개의 새로운 전시회를 개최하며 선주민 예술의 과거부터 현대까지 그 변화를 아우른다. 또한 밴쿠버섬 전역의 선주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 markloriagallery.com

스피릿 오브 더 웨스트 코스트 아트 갤러리 Spirits of the West Coast Art Gallery

선주민 예술에 대해 보다 유익하고 교육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이 갤러리는 여행자와 지역사회에 태평양 북서부 선주민의 문화와 예술 작품을 알리는 데 사명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면 투어를 넘어 가상 투어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선주민 예술가가 신화와 영적 생물을 테마로 그려낸 한정판 프린트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으니 참고할 것.

ⓘ spiritsofthewestcoast.com

Tip

전통 입기 수백 년 된 직조법과 유럽의 뜨개질 도구가 밴쿠버섬 남동부 코위찬Cowichan에 전해지면서 그 유명한 코위찬 스웨터가 탄생했다. 부피는 크지만 비교적 가벼운 의복으로 천연 색상의 원사로 짠 독특한 패턴이 인상적이다.

TO BUY 모조품이 많으므로 주디 힐 갤러리Judy Hill Gallery 같은 정통 숍에서 코위찬 스웨터를 구매하자.

ⓘ judyhillgallery.net

1일차
노스웨스트 준주 서북부이자 북극권 내에 위치한 이누비크Inuvik에 도착한다. 곧이어 인구 60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 아클레빅Aklavik에서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된다. 아클레빅은 그위친족Gwich'in과 이누비알루이트족Inuvialuit이 북극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모여들던 곳이기도 하다. 아클레빅 아이스 로드 투어Aklavik Ice Road Tour는 차갑게 얼어붙은 길과 매켄지강Mackenzie River을 아우른다. 수정처럼 맑은 풍광이 북극권에 왔음을 실감하게 한다.

2일차
이누이트족Inuit이 눈으로 만든 블록이나 얼음을 쌓아 지은 집인 이글루Igloo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마을을 구경해본다. 한편에 쌓여 있는 돌무더기는 이눅슈크Inuksuk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에 이정표 혹은 사냥터나 음식 저장고를 나타내는 표시로 쓰였다고 한다. 이눅슈크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쓰이기도 했다. 저녁 무렵에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선주민이 들려주는 설화에 귀를 기울여보자. 이누이트족의 전통 음식과 차가 온기를 더해줄 것이다. 밤이 더 깊어지면 북극권을 수놓는 오로라의 신비를 목격할 수도 있다.

3일차
옥픽 북극 마을Okpik Arctic Village에서 하루를 보내며 이누이트족이 땅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본다(옥픽은 이누이트족 언어로 흰올빼미snowy owl를 뜻하며 이는 북극권에 자생하는 상징적인 새이다). 선주민 장로들이 북극권에서 농작물을 어떻게 기르는지, 식재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가공하는지 등을 직접 보여준다. 시간이 남으면 개썰매를 타고 새하얀 마을을 자유롭게 누벼보자.

4일차
매켄지 하이웨이Mackenzie Highway를 달려 고속도로의 종착지인 투크토야크툭 Tuktoyaktuk에 닿는다. 이곳은 풍부한 선주민 역사를 지닌 마을이자 트랜스 캐나다 트레일Trans Canada Trail의 일부이다. 특히 핑고 국립 랜드마크Pingo National Landmark는 놓쳐서는 안 될 명소. 무려 1350개의 얼음 언덕이 포진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핑고인 이뷱 핑고Ibyuk Pingo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핑고는 온도가 2년 이상 0°C 이하로 유지된 토양에서만 형성되는 속이 얼음으로 찬 언덕이다.

59 이누이트족의 일상

THEME ● 지속가능성 ● 선주민 문화

SEASON 겨울

spectacularnwt.com, tundranorthtours.com
4일간의 여정

온전한 겨울을 만끽하기 위해 북극권에서 보내는 매우 특별한 4일.

YOUR CHOICE
수많은 야생동물이 무리 지어 살아가고 있는 북극권! 이곳에서는 스노모빌을 타고 3000마리 이상의 방목된 순록을 몰아볼 수 있다.

©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Jason van Bruggen

©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Jason van Bruggen

60 로키에 깃든 선주민의 발자취

200년 전에 열린 길을 따라 유구하게 이어져온 역사를 함께 되짚어본다.

THEME ● 지속가능성 ● 선주민 문화

SEASON 봄 여름 가을

YOUR GUIDE
로키산맥은 알버타 주 선주민에게 '빛나는 산' 혹은 '세계의 중추'로 알려져 있다. 메티스족Métis이자 재스퍼 투어 컴퍼니Jasper Tour Company의 헤드 가이드인 조 유리Joe Urie에게도 마찬가지다. 1860년 그의 조상이 이 지역에 정착한 이래 그에게 로키산맥은 집이었고 애서배스카강Athabasca River은 피나 다름없었다. 지역 최초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장엄한 자연과 근방을 배회하는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조 유리의 삶과 지식이 더해진 투어는 여행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끔 한다.

© Trail Riders of the Canadian Rockies

물 위의 길
로키산맥에 속한 재스퍼 국립공원 Jasper National Park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멀린 계곡Maligne Valley을 올라야 한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멀린 캐년Maligne Canyon에서 땅속 깊숙이 파고드는 물의 힘과 메디신 호수Medicine Lake에서 사라지는 물의 신비로움을 목격할 수 있다. 마침내 멀린 호수에 닿으면 물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이 호수는 과거 차바 임네Chaba Imne라고 불렸는데 이는 선주민 언어로 '비버의 호수'라는 뜻이며 '신성한 장소'를 가리킨다. 호수 근처에 자리 잡은 샬레chalet(목동들의 오두막)에 들러 커피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자.

출발 시간: 오전 8시 30분
소요 시간: 약 4시간

땅 위의 길
애서배스카 밸리Athabasca Valley는 로키산맥에서 야생동물이 가장 빈번하게 출몰하는 장소이다. 대개 5월에서 10월 사이가 관찰 최적기로 손꼽힌다. 가이드의 안전 지침에 따라 이동하면 곰, 엘크, 코요테, 늑대, 무스, 양 등을 마주할 수 있다. 단순히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보존해온 산악 생태계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 투어는 차량을 타거나 도보 루트를 모두 활용하는데 일정 구간이 지나면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이킹에 임하는 태도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편한 신발과 선글라스와 물은 필수. 중간중간 가이드가 뷰 포인트를 알려주니 이곳에서 사진을 남겨도 좋겠다.

출발 시간: 오후 5시
소요 시간: 약 3시간 30분
jaspertourcompany.com

© Travel Alberta, North Grove Creative

여행 기본 정보

면적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언어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으로 사용한다.
프랑스어는 퀘벡 주에서 주로 쓰인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비자

한국 국적의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체류 시 비자가 면제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캐나다에 입국 혹은 경유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서(eTA)를 받아야 한다. 신청 비용은 7캐나다달러. 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

통화

캐나다달러(CAD, C$)
2023년 4월 기준, 1캐나다달러는 약 980원이다.

기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만큼 기후 역시 다양하다. 남부의 온난한 기후부터 북부의 북극성 기후까지 크게 12기후 지구로 나뉜다. 따라서 여행하는 지역의 날씨를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짐을 챙겨야 한다.

시차

캐나다는 전 세계 24개의 표준시간대 중 6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다. 동부와 서부의 가장자리 지역 간 시차는 4시간 30분. 서머타임은 매년 4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작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끝난다. 밴쿠버 기준, 한국보다 17시간 느리다(서머타임 적용 시 16시간).

전압

캐나다의 전압은 우리나라와 다른 110V이므로 변압 기능이 있는 트래블 어댑터가 필수다.

전화

캐나다의 국가번호는 '1'로 미국과 동일하다.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즉, 백신접종증명서나 PCR음성확인서 제출, 격리 등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가는 방법

에어캐나다와 대한항공이 밴쿠버와 토론토에 각각 직항 노선을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밴쿠버국제공항까지는 약 10시간, 토론토국제공항까지는 약 12시간 30분 소요된다.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다른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유용한 웹사이트

캐나다 관광청 공식 웹사이트 keepexploring.kr
캐나다 관광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canadawow

AIR CANADA

에어캐나다 소개

캐나다의 가장 큰 국적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항공 동맹인 스타얼라이언스의 창립 회원사이다. 2021년 '스카이트랙스(skytrax) 세계 항공 대상'에서 3년 연속 '북미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에어캐나다 마일리지 프로그램 에어로플랜(Aeroplan)은 45개 파트너 항공사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자동차 렌탈, 호텔 숙박 등을 포함한 전 여행 일정에 걸친 다양한 상품, 관련한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을 지원한다. 또한 2050년까지 모든 글로벌 노선에서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에어캐나다 주요 목적지 및 항공편 스케줄

현재 에어캐나다는 캐나다 국내선, 미국 및 전 세계 180개 이상의 노선에 정기 승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캐나다의 주요 목적지로는 밴쿠버(YVR), 토론토(YYZ), 캘거리(YYC), 몬트리올(YUL), 오타와(YOW) 등이 있다.

편명	노선	운항 일정	운항 요일
AC64	인천 - 밴쿠버	4/1 ~ 9/30	매일 운항(주 7회)
AC62	인천 - 토론토	4/1 ~ 4/14	화/수/목/금/일(주 5회)
		4/15 ~ 9/30	매일 운항(주 7회)
AC63	밴쿠버 - 인천	4/1 ~ 9/30	매일 운항(주 7회)
AC61	토론토 - 인천	4/1 ~ 4/13	월/화/수/목/토(주 5회)
		4/14 ~ 9/30	매일 운항(주 5회)

※ 상기 일정은 항공사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에어캐나다 프리미엄 서비스

에어캐나다 시그니처 서비스(Air Canada Signature Service)
에어캐나다 시그니처 서비스는 이전 비즈니스 클래스로 알려졌었던 에어캐나다 시그니처 클래스 캐빈에서 제공하는 고품격 종합 서비스이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좌석, 컨시어지 서비스, 신속 체크인 및 보안 검색(이용 가능한 경우), 우선 수하물 처리, 탑승 우대 혜택 등 특별한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탑승 전 에어캐나다 메이플 리프 라운지(Air Canada Maple Leaf Lounge)와 전용 에어캐나다 시그니처 스위트(Air Canada Signature Suite)를 이용할 수 있다.

에어캐나다 시그니처 스위트(Air Canada Signature Suite)
에어캐나다 시그니처 클래스 고객 전용 라운지인 에어캐나다 시그니처 스위트는 5성급 다이닝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북미 프리미엄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시그니처 스위트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시그니처 고객을 위해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의 1 터미널 및 밴쿠버국제공항에 있다.

메이플 리프 라운지(Maple Leaf Lounge)
캐나다·미국 및 유럽의 16개 공항에 위치한 에어캐나다 메이플 리프 라운지는 고객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여 업무까지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샤워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에어캐나다의 라 테이블 메뉴 주문 앱을 통해 좌석에서 직접 QR코드를 스캔하거나 NFC 칩을 탭하여 간식을 주문할 수 있으며, Wi-Fi 서비스를 통해 라운지 내 어디에서나 개인이 소지한 무선기기 및 에어캐나다 비즈니스 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데스크톱 PC를 사용하여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에어캐나다가 특별한 이유 - International to Domestic Service

지난 6월부터 에어캐나다는 '수하물 자동 환승(ITD) 서비스'를 한국발 캐나다행 항공편에 도입해 본격 실행 중이다. 이는 에어캐나다만의 특별한 서비스로 자격을 충족하는 국제선 승객이 환승 공항에서 직접 수하물을 찾을 필요 없이 캐나다 국내선 최종 목적지까지 수하물이 자동으로 환승 및 배송되는 간소화된 환승 절차이다.

자세한 사항 및 항공권 구매는 에어캐나다의 공식 홈페이지(aircanada.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어캐나다 시그니처 클래스에서의 편안한 여행

업계를 선도하는 에어캐나다에서는 한국과 일부 북미 노선에서 완벽한 프리미엄 여행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우선 체크인, 보안검색, 탑승, 수하물 처리부터 기내식과 음료 서비스, 프리미엄 어메니티 키트까지 전 여정에 걸쳐 향상된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에어캐나다 시그니처 클래스 객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제공합니다.

- 최대 203.2cm (6’ 7’ ’) 길이의 완전히 눕혀지는 침대로 변하는 이그제큐티브 파드 (Executive Pods)
- 필요에 따라 조절가능한 공압 목받침대와 쿠션
- 요추 지지 및 안마 기능 내장
- 100% 면 이불
- 18인치 터치스크린 TV와 비디오 터치 리모컨,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이루어진 최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더 자세한 정보는 **aircanada.com** 에서 확인하세요.

A STAR ALLIANCE MEMBER | AIR CANADA